

제4부

이목동의 문화공간과 산업공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제1장 이목동의 문화유적과 노송지대
- 제2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동과 함께한 48년의 세월
- 제3장 농원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 제4장 대한식품회사에서 해태유업으로, 그리고 다시 동원F&B로
- 제5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하여”





이목동의 문화유적과 노송지대

SRI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이목동은 파장동과 함께 수원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며,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수원 북부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북쪽에 있는 수도 서울과 수원을 잇는 교통로로서 이 지역의 중요성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목동에 남아 있는 주요 문화유산들도 교통의 요지라는 지역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들이 많다.

먼저 이목동에는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선사시대 및 삼국시대의 유적이 있다. 특히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던 시기의 유구와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이 지역이 진출 루트로 중요시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정조 임금의 과거 아버지의 묘를 찾아 수원을 다녀갔던 원행 길의 흔적도 빼놓을 수 없다. 정조가 길을 따라 심었던 소나무, 그리고 정조의 효심을 기려 세운 지지대비 등이 그것이다. 옛길 관련 유적들은 이목동의 지리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한때는 노송지대를 따라 과거 수원에서 재임했던 지방관들의 선정을 기록한 선정비(송덕비)가 세워져 있기도 했다. 선정비가 현재도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노송지대와 함께 이목동의 경관을 구성했던 요소이기도 했으며, 수원의 의미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이목동의 매장문화재

이목동은 호매실지구나 광고신도시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발굴이 시행된 곳은 아니지만,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 옛날 수원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대부분 신라의 한강 유역



이목동의 매장문화재 확인 지역(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진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정조의 화성 건설 이전의 역사적 자료가 부족한 수원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 이목동 유물산포지

1999년 9월 기전문화재연구원(현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에 걸쳐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목동에서 유물이 흩어져 있는 유물산포지 3곳이 발견되었다. 이는 문화재 조사를 통해 이목동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밝혀낸 첫 사례이며, 이후 이목동에서 진행되는 조사의 참고 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목동 유물산포지 1은 장안구 이목동 424번지에 위치한다. 2023년 현재 서부로가 지나가는 안죽골삼거리 서측 구릉에 위치해 있다. 유물산포지 서쪽에는 삼성가의 선영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사 결과 토기와 분청사기 하단부의 파편이 채집되었다.

이목동 유물산포지 2는 장안구 이목동 196-1번지 일대에 소재한다. 영동고속도로 아래 얽은 구릉에 위치했으며, 서쪽에는 화장실문화 전시관인 해우재, 동쪽에는 동원고등학교가



이목동 유물산포지 1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023년 유물산포지 1



이목동 유물산포지 2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023년 유물산포지 2



이목동 유물산포지 3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023년 유물산포지 3

SRI 수원시정연구원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있다. 조사 당시에도 주변에 고물상 및 민가가 들어서 남은 면적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2023년 현재에는 더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미개발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시 조사를 통해 토기와 자기 파편 등이 발견되었다.

이목동 유물산포지 3은 장안구 이목동 산31-3번지 인근에 위치한다. 영동고속도로 북쪽에 있으며 유물산포지 2와 영동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형세이다. 2023년 현재까지도 조사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토기 및 자기 파편과 기와편이 채집되었다.

2) 수원 이목동 유적

2003년에 조사된 수원 이목동 유적은 장안구 이목동 24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유적이다. 조사 지역은 동우여자고등학교, 이목중학교 동쪽에 붙어 있는 구릉지이다. 당시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제토작업이 진행되던 중 현장답사를 진행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처음 발견하였고,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접수한 문화재청에서 통보한 조치 사항에 따라 동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현재 이 지역에는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수원 이목동 유적 전경(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수원 이목동 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조사 결과 이목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삼국시대(신라) 석곽묘 2기, 고려~조선시대 묘 5기, 시기 미상의 수혈(豎穴, 구덩이) 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민무늬토기 및 어망추, 가락바퀴, 석촉 등 청동기시대의 것에서부터 삼국시대의 굽다리 접시, 뚜껑, 병, 주발 등 각종 토기류, 그리고 송나라 동전 승녕통보(崇寧通寶), 철제 가위, 관뿔, 청동순가락 등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내 남동쪽 능선부인 해발고도 83~85m에 위치한다.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삼국시대(신라) 석곽묘가 주거지 내부퇴적토 및 바닥층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이다. 주거지의 남쪽 끝벽이 일부 유실되었으나 모서리가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원형을 유지했다. 주거지 전체의 규모는 길이 1,610cm, 너비 700cm, 최대 깊이 64cm이며 집자리 바닥의 규모는 길이 1,520cm, 너비 660cm로서, 바닥 면적이 100.32㎡에 해당하는 초대형 주거지이다. 동쪽 벽에서 출입 시설 흔적으로 보이는 돌출부가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기둥구멍 15개, 저장공 12개, 화덕자리 2개, 소형 수혈 1개가 확인되었다. 이 주거지는 평면 형태 및 규모, 시설물, 출토 유물 등을 주변 유적과 비교 분석하여 청동기시대 전기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삼국시대(신라) 1호 석곽묘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삼국시대(신라) 2호 석곽묘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호 석곽묘는 남사면 하단부 해발 84m에 위치하는 수혈식석곽묘(豎穴式石槨墓, 구덩식 돌곽무덤)이다. 수혈식석곽묘는 시체를 무덤에 수직으로 넣도록 옆으로 트인 입구가 없이 돌로 네 벽을 짠 무덤을 의미한다. 이 석곽묘는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돌벽이 3~5단 정도 남아 있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05cm, 너비 70cm, 깊이 70cm이며 직사각 형태를 띤다. 시신을 올리는 대인 시상(屍床)은 작은 판판한 석재를 활용하여 바닥에 1겹으로 깔았으며, 머리 고임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별도의 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시신의 가슴 부분에 위치하게 부장하였으며, 대부완(臺附椀, 굽다리가 달린 주발) 1점과 완(椀, 주발) 1점이 출토되었다.

이목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 등 다양한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목동 지역이 선사시대로부터 삼국 및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호 석곽묘는 수원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로 주목받았으며, 2006년 수원시 향토유적(향토유산) 제7호에 지정되었다. 석곽묘는 2008년에 수원박물관으로 이전했으며 2023년 현재에도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록 유적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목동, 그리고 나아가서 수원의 고대 문화를 확인하는 데 이목동 유적이 갖는 의의가 작지 않다는 것을 잘 보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 유물(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석곽묘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토기(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 유물(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고려-조선시대 민묘 출토 유물(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 무문토기(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2호 석곽묘 출토 통일신라시대 유물(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전경(한울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2010)



2023년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일대(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여 주고 있다.

3)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은 장안구 이목동 305-1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 전 시행된 문화재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조사지역은 광교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두 개의 가지능선 사이에 위치하며 경사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능선의 말단부이다. 조사는 한울문화재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2007년 지표조사에 이어 2008년 시굴 및 발굴조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곳에는 장안STX-KAN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주거지 2동, 수혈 23개, 구상(溝塲, 도랑형)유구 3개, 기둥구멍 3개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120점, 기와 9점, 금속 5점 등이며, 대부분 백제·신라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유적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토기는 앞서 조사된 수원 이목동 유적의 토기와 비슷한 형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유구를 살펴보면 2호 주거지는 장축 520cm, 단축 480cm의 방형 주거지이다.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남단 벽 상단부는 교란되어 파괴되었다. 벽면과 일정 폭을 두고 1열로 할석(割席, 깎돌)이 열을 지어 세워져 있고, 할석이 이어져 중앙부 남쪽에는 적갈색으로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할석의 열은 중앙부의 아궁이에서 연기를 빼내는 쪽구들 시설로 추정되었으며, 이른바 'T'자형의 구들 구조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심발형토기와 동이, 주발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를 통해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은 대부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와중에 형성된 취락의 일부로 판단되었고, 유적 북동쪽에 있는 수원 이목동 유적 석곽묘와의 관계성도 주



2호 주거지
(한울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2010)



2호 주거지 쪽구들
(한울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2010)

목되었다. 특히 유적이 수원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있던 것은 신라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유적은 수원 이목동 유적과 함께 당시 조사 사례가 많지 않았던 신라의 영역 확대 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 정조의 원행과 노송지대

1번 국도를 따라 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가면 도로변에 소나무들이 서 있는 색다른 풍경을 만나게 된다. 소나무들이 있는 길목은 현재 삼풍공원-노송공원 등을 거쳐 송정초등학교 인근까지 점점이 이어져 있다. 이 근방이 200여 년 전 정조가 현릉원을 방문하기 위해 오갔던 길이고, 오늘날에는 '노송지대'라고 불리는 구간이다. 의왕과 수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1번 국도가 지나는 언덕은 그 유명한 '지지대고개'이며, 이곳에서부터 노송지대가 시작된다. 노송지대는 이목동과 파장동, 그리고 멀리는 송죽동까지 걸쳐져 있다.

조선 후기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당시 수원의 읍치였던 현재의 용건릉 일대로 옮기고, 그 북쪽에 새로운 도시와 성곽을 세웠으며,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이곳을 오갔다. 노송지대의 조성도 이러한 정조의 행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 즉 오늘날의 용릉으로 옮기고 정조는 13번의 능행차를 단행했는데, 그때 정조가 다녔던 길에 소나무를 위주로 나무를 심은 것이 오늘날의 노송지대가 되었다. 정조는 원행을 하기 전 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는데, 그것이 이어져 오늘날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1번 국도의 원형이 되었다.

일설에 따르면 정조가 아버지의 묘인 현릉원의 나무 심기를 담당하는 관리인 식목관에게 내탕금을 하사하여 노송지대에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했다고 한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을 찾기는 어려우나 조선왕조실록에는 1790년 내탕고의 돈 1,000냥을 내려보내 현릉원의 나무 심는 비용에 대게끔 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정조는 현릉원과 화성 신도시의 나무 심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1790년에는 수원과 남양, 과천, 광주 등 인근 읍이 참여하여 현릉원에 소나무 45만여 주를 심었다. 『화성성역의궤』 재용(財用) 실입(實入)의 식목(植木) 부분에는 1794년부터 1797년까지 매년 봄과 가을에 7차례 성 안팎으로 나무를 심었으며, 단풍나무, 탕자나무, 뽕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오얏나무, 복숭아 살구 등 과일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 혹은 그 씨앗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1831년 편찬된 읍지인 『화성지』에서도 왕이 거동한 도로인 필로(蹕路)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길 좌우로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서로 연이어 심었다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

기유년(1789년) 현릉원을 옮긴 뒤에 조정과 왕실에서 값을 치르고 길 주변의 전답을 사들이고 길을 넓게 닦고 (중략) 길 좌우로는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서로 연이어 심었다.

이에 노송지대의 소나무들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건설했던 시기에 심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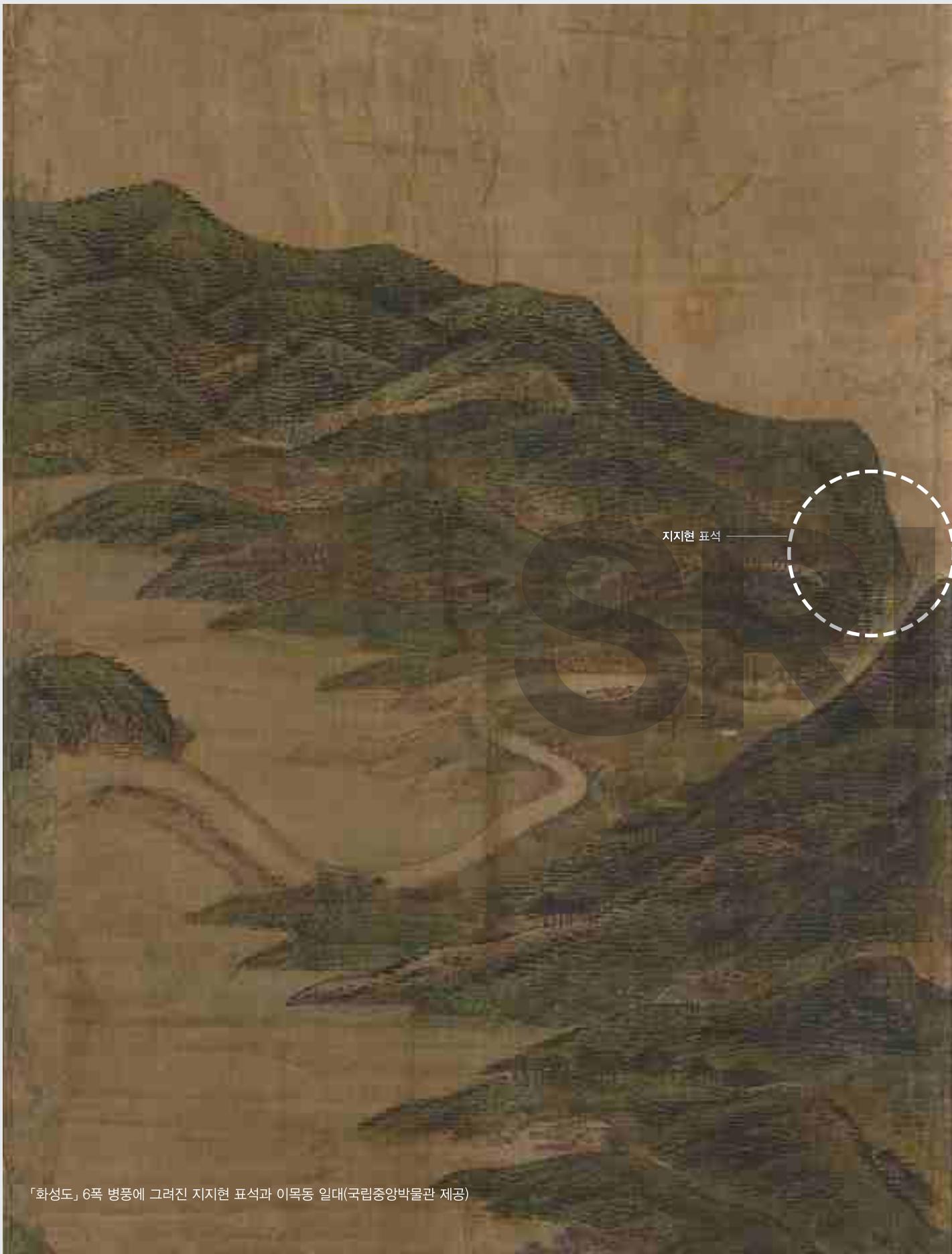
노송지대가 시작되는 지지대의 이름은 원래 사근현(沙近峴) 혹은 미륵현(彌勒峴)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정조가 이곳에서 현릉원을 바라보며 떠나지 못해 발걸음이 더디어진다고 하여 이름을 '지지대(遲遲臺)'로 바꾸었다. 이후에도 실록에는 정조가 수원에서 한양으로 돌아갈 때마다 지지대에서 머뭇거렸다는 대목이 빈번하게 나오곤 한다. 이러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어사 신현(申鉉, 1764~1827)이 건의하여 1807년 지지대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외에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 노송지대(현릉원이라는 설도 있음)에 송충이가 늘어나 소나무를 마구 갉아먹었다. 정조는 백성들에게 상금까지 내리며 송충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결국 마음이 아팠던 정조가 손수 송충이를 몇 마리 잡아 입에 넣고 씹어 버리니 그 많던 송충이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조의 효심, 그리고 조경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잘 보여 주는 일화가 아닐까 싶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노송지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1900년대 초 경부철도 노선을 지지대고개를 관통하여 부설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 주민들은 대거 반발하였고, 수원 출신이었던 당시 철도원 총재 유기환(兪箕煥)의 중재를 통해 경부철도는 지지대와 팔달산을 통하는 노선 대신 서호 방향으로 부설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지대고개는 수원을 상징하는 명소의 하나로서 소개되었다. 일제강점기 수원에 정착했던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1915년 발행한 『발전하는 수원』에서는 지지대고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효성이 그지없는 정조가 해마다 봄과 가을에 화산릉을 참배하였다. (중략) 귀로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원 북방 약 1리 지점에 있는 고개에 다다르면 가마를 천천히 가게하고, 남쪽을 바라보기를 되풀이하였다. (중략) 이 고개를 '지지대'라고 부르고,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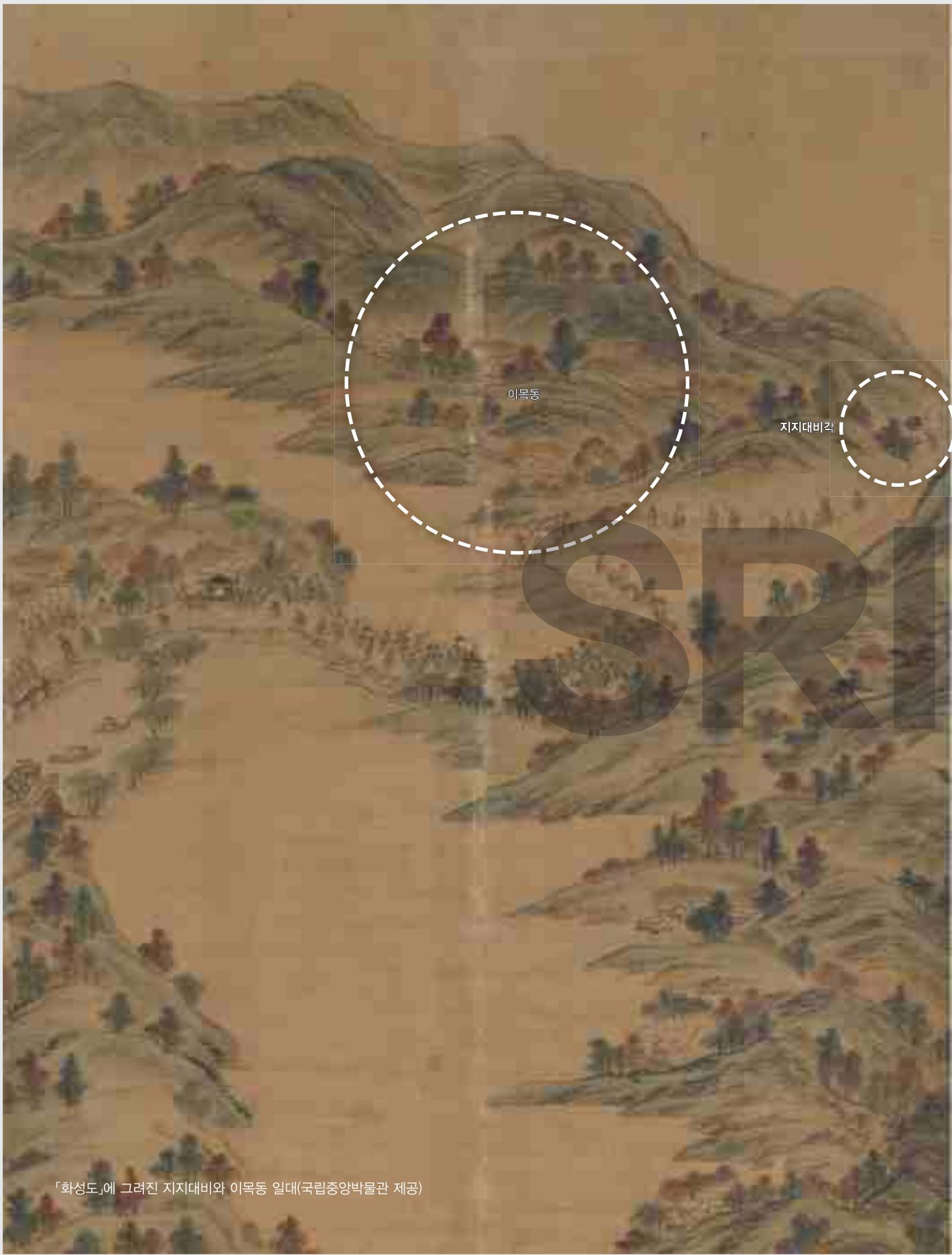
지지현 표석

「화성도」 6쪽 병풍에 그려진 지지현 표석과 이목동 일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지현 표석(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지지현의 처음 이름은 사근현이었으나 1795년(정조 19) 미륵현으로 바뀌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지지현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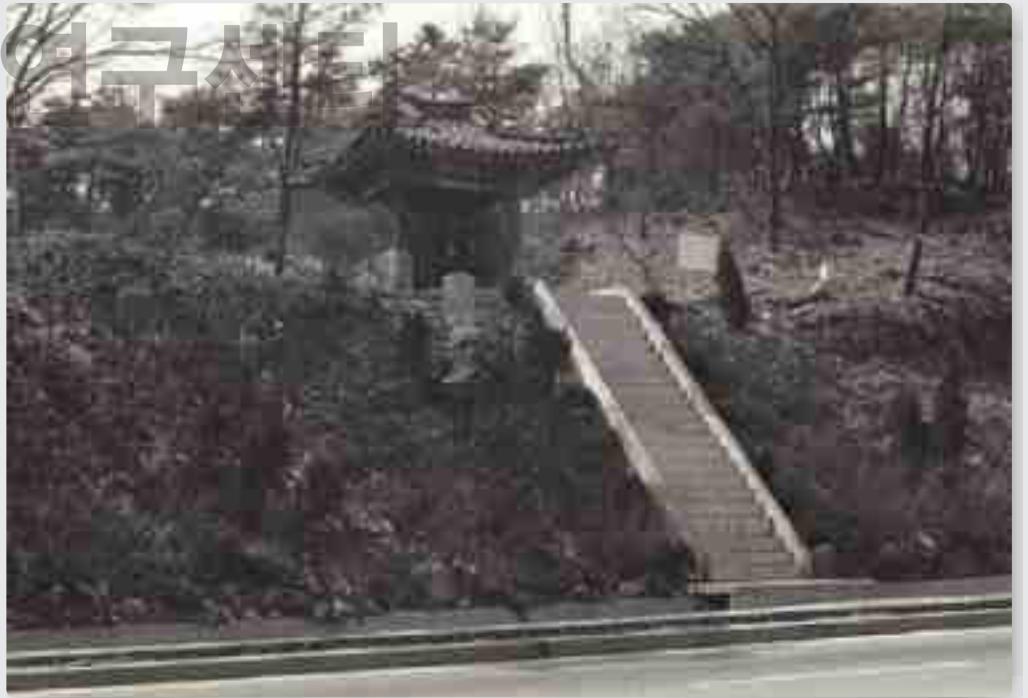


「화성도」에 그려진 지지대비와 이목동 일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경수산업도로 건설 이전 지지대비(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수산업도로 건설로 지면이 낮아져 가파른 계단이 높은 지지대비(1978년, 수원박물관 제공)



장안구 이목동 산72번지에 자리한 지지대비(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괴목정교 표석(수원박물관 제공)



수원박물관으로 이전하기 전 괴목정교 표석(2007년,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대유평 거승 숲길(1978년, 윤한흠 작)



장안문 밖 거승(『조선의 임수』, 1938)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후 1930년대 발간된 『조선의 임수』에서도 노송지대에 500여 주의 소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제강점기까지 노송지대의 소나무는 대체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들 소나무 인근에는 딸기밭과 삼풍농원 등 여가공간이 조성되며 수원의 관광명소로서 자리 잡고, 1973년 7월에는 ‘노송지대’라는 이름으로 경기도기념물(제19호)에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름이 노송지대가 된 이유에는 인근 푸른지대를 비롯해 ‘지대’라는 명칭을 가진 딸기밭이 많이 생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한편 지지대고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73년 경수산업도로를 내면서 지지대고개 한복판에는 넓은 자동차도로가 생겨났다. 특히 도로공사 과정에서 굴착을 단행하여 지지대비는 기존보다 훨씬 높고 가파른 계단 위에 두어진 형국이 되었다.

1974년에는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국방부 주도하에 경기도 일원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가 제작되었는데, 전쟁 중 부대가 처음 주둔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프랑스군 참전기념비가 수원 지지대고개에 세워졌다. 프랑스군 참전기념비와 지지대비에 남은 총탄 흔적을 통해 지지대고개는 정조의 효심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억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다. 정조의 효성을 부각하는 사업도 계속되어 1986년에는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남쪽에 효행공원이 조성되고 정조 동상이 세워졌으며, 1989년에는 정조 관련 자료들을 전시한 효행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노송지대는 점점 유명해졌으나 그에 반비례하여 소나무들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전쟁 등 혼란기도 겪었으나 특히 바로 옆에 자동차 도로와 매매단지, 공장 등이 들어서며 발생하는 매연과 진동으로 수원의 노송들은 점점 사라져 갔고, 오늘날에는 34주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노송의 고사 위기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신문기사 등에서 언급되어 있었고, 수원시에서도 영양제와 병충해 방제 주사를 놓는 등 나무를 살리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다. 1995년에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후계목을 심는 등 노송지대의 복원에 신경 썼다.

2010년대에는 삼풍가든 부근에 위치한 노송지대를 통과하는 자동차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해 녹지를 조성하고, 소나무와 각종 식물을 심는 등 복원 정비를 진행하여 2022년에 2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제 노송공원으로 불리는 이 구역은 매년 8월 개최한 맥문동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으며, 2023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모범 도시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972년 노송보호구역 표지판(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972년 노송지대를 오가는 차량(수원박물관 제공)



1976년 뿌리가 뽑힌 노송(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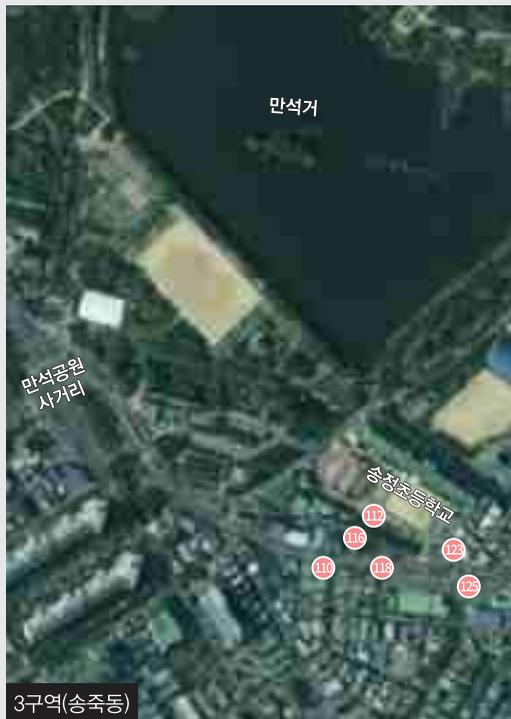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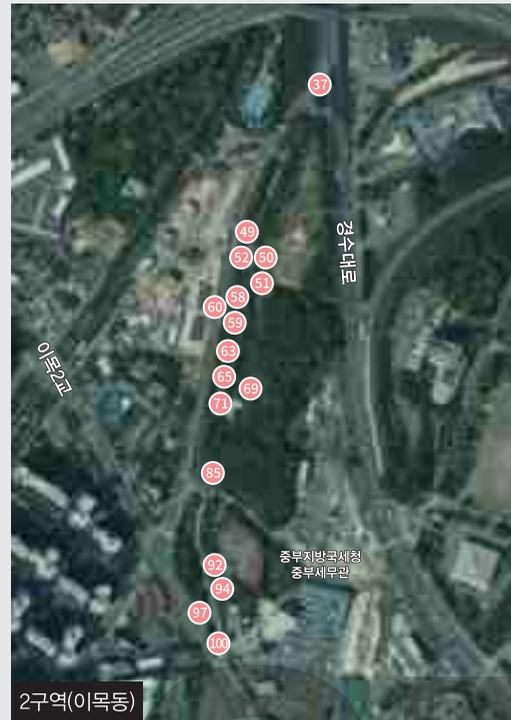


1984년 노송 관리(수원박물관 제공)



1984년 노송 관리(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 SUWON RESEARCH 수원학



구분	지정 노송	구간 및 지정번호
제1구역 (파장동)	9	프랑스참전비-지지대심터 옆 2호, 11호, 14호, 15호, 17호, 18호, 22호, 27호, 28호
		삼풍농원-노송지구 대
제2구역 (이목동)	19	37호, 49호, 50호, 51호, 52호, 54호, 58호, 59호, 60호, 63호, 65호, 69호, 71호, 81호, 85호, 92호, 94호, 97호, 100호
제3구역 (송죽동)	6	슬기샘도서관-송정초등학교 110호, 112호, 116호, 118호, 123호, 125호
계	34	

수원시 노송지대 위치와 노송 분포



2023년 노송지대(수원시청 제공)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공원 옆 새로 낸 도로 건너편의 정비되지 않은 모습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지지대고개 구역은 2023년 현재 1번 국도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편의점과 화장실이 있는 지지대 쉼터가 운전자를 맞이하고, 동쪽에는 프랑스군 참전기념비와 효행공원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전에 효행기념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2011년부터 어린이미술체험관으로 활용되었다가, 최근에는 북수원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작가들의 대관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효행공원 남쪽에는 2019년에 유명 빵집이 문을 열고 이 구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금은 서측과 동측 간 통행이 불편하고 대형 차량들이 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구역의 문화콘텐츠를 잘 연계한다면 향후 이목동-파장동, 나아가서는 수원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옛 딸기밭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73년 7월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었던 노송지대는 2024년 7월 4일 경기도 자연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총 3구역에 614주(지정노송 34주, 후계목 580주)가 식재되어 있다.

3. 노송지대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진 선정비

선정비(善政碑)는 덕을 칭송한다는 뜻의 송덕비(頌德碑), 공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의 불망비(不忘碑) 등으로도 불린다. 고을을 위해 헌신한 관리의 공덕을 기리고자 백성들이 세운 비석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들도 마음대로 선정비를 세워서 그 폐단이 심각했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비를 부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벌인 학정의 상징물처럼 여겨져 왔던 선정비이지만,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해당 지역 지방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수원의 선정비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수원역대목민관 송덕비군'이라는 이름으로 향토유적 제3호에 등재되었다.

수원의 선정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목동과 파장동 사이에 걸쳐 있는 노송지대에 늘어서 있었다.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장안문 앞과 중동사거리, 구천동, 매교역(윗버드내) 부근 등 수원의 주요 지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으나, 노송지대가 보호구역으로 조성되면서 1972년경에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송지대의 소나무와 어우러진 선정비들은 수원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노송지대에 서 있던 선정비들은 옆을 지나가는 차량의 매연과 진동, 소음 등으로 훼손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고, 2008년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이 건립되며 분산 이전되었다. 이제 선정비들은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선시대 수원을 담당했던 목민관들의 면모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조성된 수원 선정비들은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고 있다. 수원박물관에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수원에 재임했던 관리들의 선정비 27기가 전시되어 있고, 수원화성박물관에 전시된 선정비 10기는 대체로 화성 축성 직후인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 수원에 재임했던 유수(留守) 및 판관(判官)들의 것이다.



장안문 밖 비석거리(1977년, 윤한흠 작,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은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중동사거리(1977년, 윤한흠 작,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향유연구센터

구천동 비석거리(1977년, 윤한흠 작,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구천동 구도로의 옛 모습을 그린 것이다. 수원 역대 목민관들의 선정비들이 많이 있어, 이 지역을 비석거리로 불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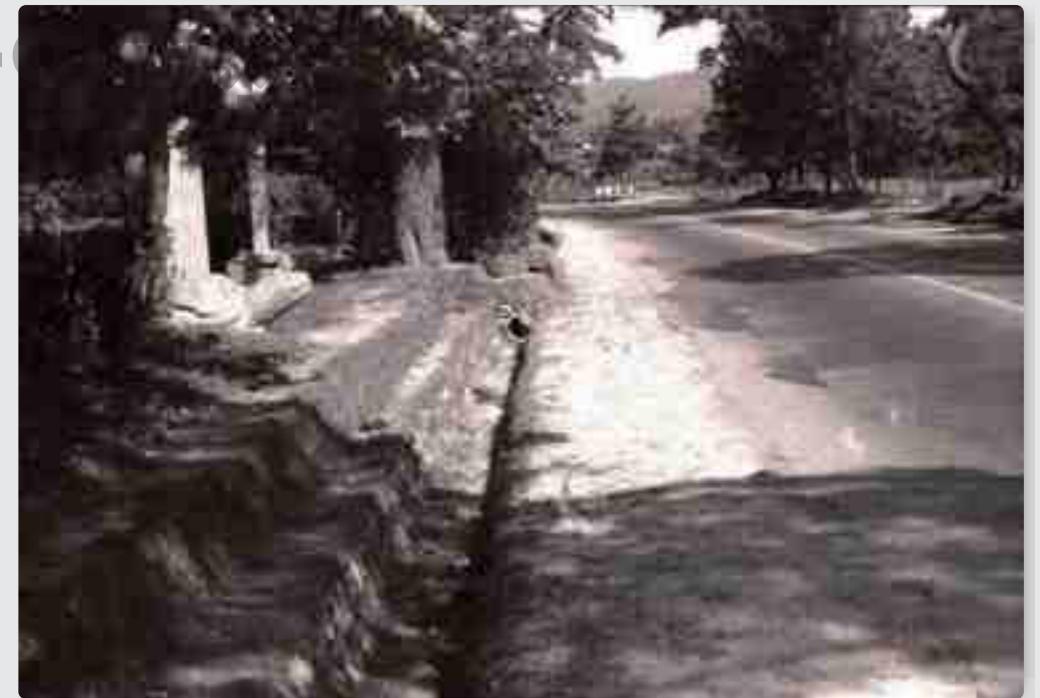
1907년 대로변 선정비(헤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노송지대로 옮겨진 선정비(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역대 선정비군(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노송지대로 옮겨진 선정비(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8년 노송지대 부국농원 앞에 세워져 있는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1979년 노송지대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1988년 노송지대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수원의 선정비에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300여 년의 세월 동안 활동한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중에는 정묘·병자호란 때 활약한 인물도 있고 조선 후기 정조 대에 활동한 신하도 있었으며, 19세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고종 대 민씨 일족의 거두, 갑오개혁의 주역, 개화를 반대했던 인물, 그리고 일제의 강제 병합에 찬동한 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원 선정비를 통해 조선 중기로부터 말기까지 당시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박물관으로 이전 설치된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수원박물관 전시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① 이시백 선정비(1629년)
府使李公時白清德撫軍善政碑
崇禎二年己巳五月日

② 구인후 선정비(1638년)
府使具公仁后撫軍清德善政碑
戊寅二月日

③ 임의백 선정비(1662년)
府使任公義伯愛民善政碑
壬寅正月日

이시백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④ 민진원 선정비(1704년)
府使閔公鎮遠清德善政碑
甲申九月 日立

⑤ 이상진 불망비(1705년)
府使李公尙眞永世不忘碑
乙酉四月 日立

⑥ 권상유 선정비(1705년)
府使權公尙游永世不忘碑
乙酉四月 日立



⑦ 김시근 불망비(1822년)
留守金公蕃根永世不忘碑
壬午八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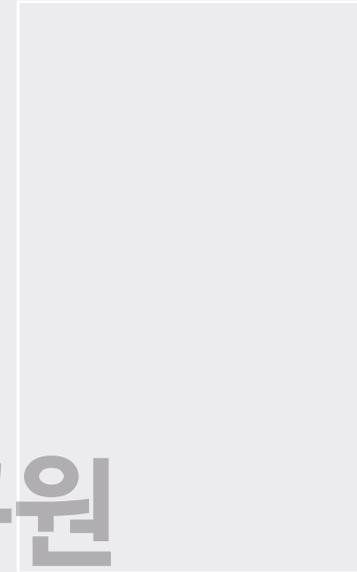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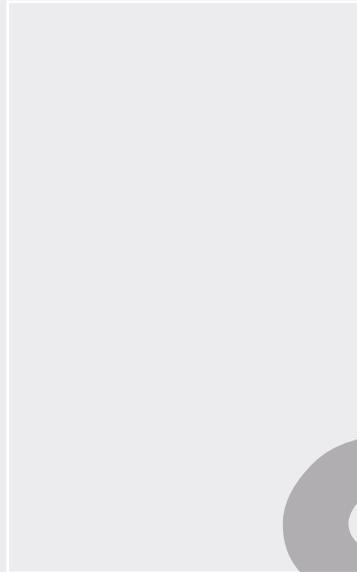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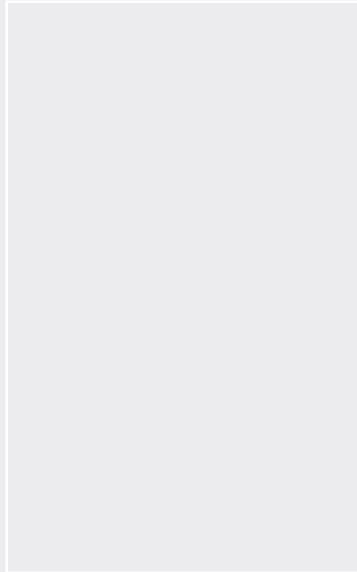
⑧ 남병길 선정비(1865년)
留守南公秉吉清德善政碑
乙丑五月 日立

⑨ 이재원 불망비(1871년)
留守李公載元永世不忘碑
上之八年辛未七月 日

수원시
SUWON RE
수원학

수원시정연수원

SUWON RE
수원학



⑩ 이재원 불망비(1871년)
留守李公載元永世不忘碑
兩歲重寄 金出五萬 一心大閱 兵簡三列
表裏京營 看我貞珉 矜式外臬 職公功烈
辛未八月 日立

⑪ 이재원 불망비(1871년)
留守李公載元永世不忘碑
我公至止 憐窮婚就 山斗景仰 量料月放
頌騰歌袴 屹彼石兮 恩深挾續 百世瞻望
辛未八月 日立

⑫ 정기명 선정비(1873년)
判官鄭侯基命愛民善政碑
癸酉十一月 日立

⑬ 민승호 불망비(1874년)
留守閔公升鎬永世不忘碑
甲戌八月 日立

⑭ 민승호 불망비(1876년)
留守閔公升鎬永世不忘碑
丙子三月 日立

⑮ 민승호 선정비(1876년)
留守閔公升鎬清德愛民善政碑
試公表均 衆心浹洽 士勸民懷 萬口和諧
丙子三月 日立



⑯ 민두호 불망비(1878년)
判官閔侯斗鎬永世不忘碑
戊寅六月日

⑰ 민두호 불망비(1879년)
判官閔侯斗鎬永世不忘碑
己卯二月日立

⑱ 송근수 불망비(1882년)
留守宋公近洙永世不忘碑
壬午十月日立



⑲ 구완식 불망비(1885년)
中軍具公完植永世不忘碑
乙酉十月日立

㉔ 정기세 선정비(1888년)
留守鄭公基世清德愛民善政碑
戊子五月日立

㉕ 윤자덕 불망비(1890년)
留守尹公滋惠永世不忘碑
庚寅十月日立石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소



㉔ 이헌직 선정비(1891년)
留守李公憲植清德愛民善政碑
辛卯四月 日立

㉕ 김홍집 선정비(1892년)
兼留守金相公弘集清德善政碑
壬辰三月 日立

㉖ 김홍집 선정비(1892년)
兼留守金相公弘集清德善政碑
壬辰三月 日 車慶麟并謹書



㉗ 불망비(1893년)
留守閔公泳商永世不忘碑
癸巳三月 日 廳直廳 立

㉘ 윤영신 불망비(1893년)
留守尹公榮信永世不忘碑
癸巳八月 日立

㉙ 이재극 선정비(1901년)
觀察使李公載克清德善政碑
辛酉二月 日 車時敏書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
수원학연구원

수원화성박물관 전시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㉘ 박주수 불망비(1830년)
留守朴公周壽永世不忘碑
庚寅四月日

㉙ 서유린 선정비(1831년)
留守徐公有隣愛民清德善政碑
遼歸三十二年
道光十一年辛卯十二月立

㉚ 이헌기 선정비(1832년)
留守李公憲琦撫軍愛民善政碑
壬辰閏九月日



㉛ 박기수 선정비(1844년)
留守朴公綺壽清德愛民善政碑
甲辰五月日

㉜ 정원용 선정비(1844년)
留守鄭公元容清德愛民善政碑
甲辰五月日

㉝ 이약우 선정비(1848년)
留守李公若愚愛民善政碑
戊申六月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③④ 김병기 선정비(1848년)
 判官金公炳冀愛民善政碑
 戊申六月日

③⑤ 이학수 선정비(1858년)
 留守李公鶴秀永世不忘碑
 上之八年戊午五月日

③⑥ 김병교 불망비(1862년)
 留守金公炳喬永世不忘碑
 同治元年壬戌三月日

③⑦ 서유구 선정비(1864년)
 留守徐公有集淸德善政碑
 甲子十月日立

참고자료

1.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2. 『수원 이목동 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8.
3.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08.
4. 『세우다 새기다 쓰다』, 수원박물관, 2010.
5.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수원시, 201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동과 함께한 48년의 세월

SRI

수원시정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예연구소

1. 원예작물 연구와 우장춘 박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등 원예특작 농산물에 대한 품종 육성과 생산 및 가공 기술, 식·의약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원예특작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원예모범장은 1906년 8월 고종이 서울 독림에 설치한 원예 연구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1910년 국권 침탈 이후 조선총독부 산하 권업모범장 독도지장으로 편입되었다. 식민지시기 원예 연구는 일본인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본격적인 원예 연구는 1948년 9월 1일 (재)한국농업과학연구소(부산 동래)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일본에 체류 중이던 우장춘 박사가 귀국하여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한국농업과학연구소는 1953년 5월 20일 농림부 중앙원예기술원으로 개편되었고, 1962년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시험장으로 변경되었다.

중앙원예기술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우장춘 박사는 품종 육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원예작물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오늘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된다. 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1대 원장인 강상조와 제3대 원장인 고관달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관달 : 우리 과학원 사람들이 열성적인 게 뭐냐 하면, 우장춘 박사가 이제 (과학원의 전신인원예시험장) 초대 원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그분이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세 명 중 한 명, 넘버원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있지.



교배작업을 하고 있는 우장춘(농촌진흥청 제공)

강상조 : 제가 만든 플럼코트의 이론적 배경이 된 분이 우장춘 박사님이세요. 저도 그분의 종의 합성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해 본 거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람들은 입 모아 우장춘 박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우장춘 박사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귀국한 후 일본에 의존하던 채소 종자를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학 양성에도 헌신하였다. 특히 그가 고안한 '종의 합성'은 종의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을 합성해내는 이론으로 현재에도 자연과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우장춘 박사는 그의 뛰어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끊임없이 차별받았고, 당시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의 업적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장춘 박사의 정신은 현재에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람들이 이어 가고 있다. 5월 2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개원기념일 행사에 우장춘 박사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우장춘 박사의 기일인 8월 10일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4년 부산 동래에 자리한 중앙원예기술원의 원종 생산 망실(농촌진흥청 제공)





1956년 동래 중앙원예기술원 화훼온실에서(농촌진흥청 제공)



1958년 우장춘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페튜니아 교배작업을 하는 동래 원예고등학교 실습생(농촌진흥청 제공)

SRI 수원시립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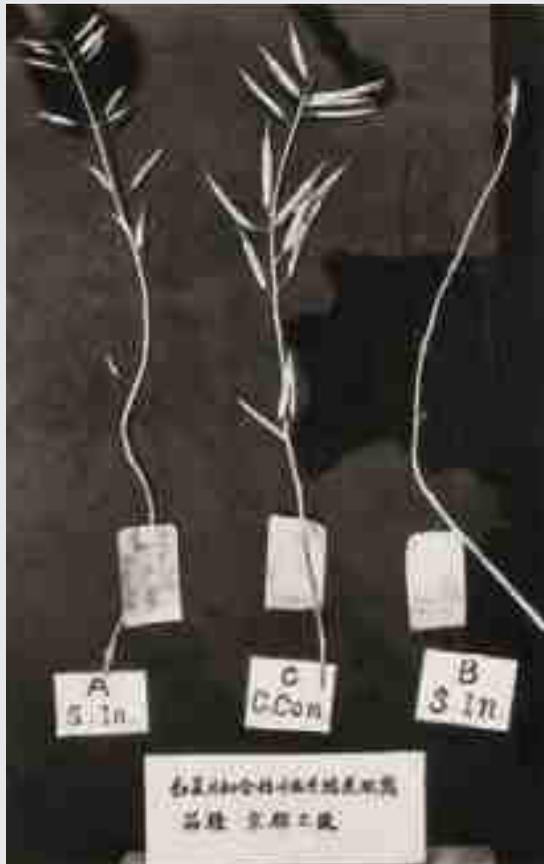
1957년경 중앙원예기술원을 방문한 주한 미국 대사 다우링 내외에게 품종 개발에 대해 설명하는 우장춘 박사 (농촌진흥청 제공)



원에 2호 배추(농촌진흥청 제공)



1956년 춘파야기 배추(농촌진흥청 제공)



배추자식 결실 불량한 2개체가 상호 간 임성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농촌진흥청 제공)



1955년 오이 도입 품종 재배 시험 장면(농촌진흥청 제공)

다양한 품종의 과일을 비교하며 먹고, 계절과 무관하게 소비하는 것이 당연해진 오늘날이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전쟁에 필요한 식량 조달처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서양의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사가 시작되었다. 전후에는 식량부족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장춘 박사를 필두로 품종 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관달 : 지금 품종이 개량되고, 계절성을 극복하고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건 기술의 힘이에요.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예를 들어 그때 시험장이 생겼을 때는 배추도 거의 품종이 없었고 설갈이배추라고 배춧잎이 한 10~15개 정도 되는 배추였고 포기 배추가 없었어. 우장춘 박사가 오면서 원예시험장에서 포기 배추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 도시락 못 싸온 애들은 절반이 넘었고 세끼 밥 먹기가 어려웠죠. (중략) 그래서 이목동에서 30년 생활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요.

이후 산업화로 농업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가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책임감도 드러났다.

강상조 : 1990년대 이후 농촌과 도시 근로자의 가구 당 소득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쌀은 지금도 가격이 정부 통제하에 있는데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과실은 좋은 품종을 만들고 소비자가 찾는 품종 생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농촌 소득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내가 맡은 일에서 빨리 결과를 내서 농업인들에게 돌려줄 때 농업인들이 부자가 된다는 목적이 강했어요.

그렇다면 치열하고 열정이 넘쳤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람들의 연구 이야기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48년간 이목동에서 이루어졌던 주요 성과를 살펴볼도록 하겠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변화

1940년대



- 1948년 9월 재단법인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설립

1950년대



- 1953년 5월 농림부 중앙원예기술원 설립 (초대원장 : 우장춘)
- 1957년 5월 농사원 원예시험장 개편
- 원예 연구 태동기
- 채소종자 자급(배추, 무) : 채소종자 산업 태동 및 발전

1960년대



- 1962년 4월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개편
- 1967년 1월 수원시 이목동으로 이전
- 원예 품종 육성체계 구축
- 우리나라 최초 배추 품종 육성(원예 1호, 원예 2호)
- 우리나라 최초 과수 품종 육성(단배)

1970년대



- 김장채소 자급화 및 생산기반 확립
- 김장채소 자급화
- 접목재배 및 왜성대목 보급
- 녹색혁명 후 품질향상 주력

SRI 수원시립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0년대



- 2010년 4월 원예작물부 내 도시농업연구팀 신설
- 2015년 2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신성장동력 기술 개발
- 신수요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 육성
- 유전체 기반 품종 육성
- 시설, 노지 스마트팜 작물맞춤형 제반기술 개발
- 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2000년대



- 2004년 1월 영남농업시험장 부산원예시험장을 원예 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으로 개편
- 2008년 10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개편 (원예작물부, 인삼특작부 신설)
- 시장·소비자 지향 연구
- 로열티 대응 품종 육성
- 생명공학기술 이용 육종 기반 구축
- 사과, 배 밀식 재배기술 실용화

1990년대



- 1991년 11월 과수연구소 신설
- 1994년 12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로 개편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 통합)
-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개발
- 양액재배기술, 표준하우스 모델 개발
- 고품질·노동력 절감형 품종 보급

1980년대



- 원예박물 연중 생산체계 확립
- 시설채소 재배로 연중 생산체계 확립
- 표준시비량 및 방제력 개발
- 원예산업의 백색혁명 성취

2. 원예시험장, 이목동 475번지에 동지를 틀다



원예시험장의 이목리 이전 결정(『매일경제』 1966년 4월 5일)

1962년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개편될 당시 원예시험장은 동래본장(부산시)과 서울지장(서울시 휘경동), 과수과(원예2과, 수원시 서둔동)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원예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연구 부지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부산과 서울 지역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연구 부지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산하 시험장(작물시험장,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을 농촌진흥청이 소재한 서둔동 주변으로 분산 배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원예시험장 이전을 결정하고 이전 부지를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농촌진흥청 북쪽 지역인 수원시 이목동에 원예시험장 본장이 자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원시는 원예시험장 유치를 위해 부지 매수 및 청사 신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원예시험장 부지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1번 국도 인접 지역 토지의 매입을 건의하였다. 이 부지는 경수산업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비산면지가 많고 소음공해가 심하였다. 이에 다양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이종린 장장은 1966년 1번 국도에서 떨어진 이목동 475번지를 이전 부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어 원예시험장 본관을 비롯한 각종 부속시설들이 건설되었고 마침내 1967년 원예시험장이 새로 개장되어 이목동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로가 확장되기 전까지 1번 국도에서 원예시험장 정문까지는 비포장도로였고, 원예시험장 앞 하천은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 외진 곳이었다.

원예작물 연구를 이끌어 가던 원예시험장은 1991년 과수연구소를 설치한 데 이어 탐동청사를 신축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1994년 12월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 통합하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로 개편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개편(원예작물부, 인삼특작부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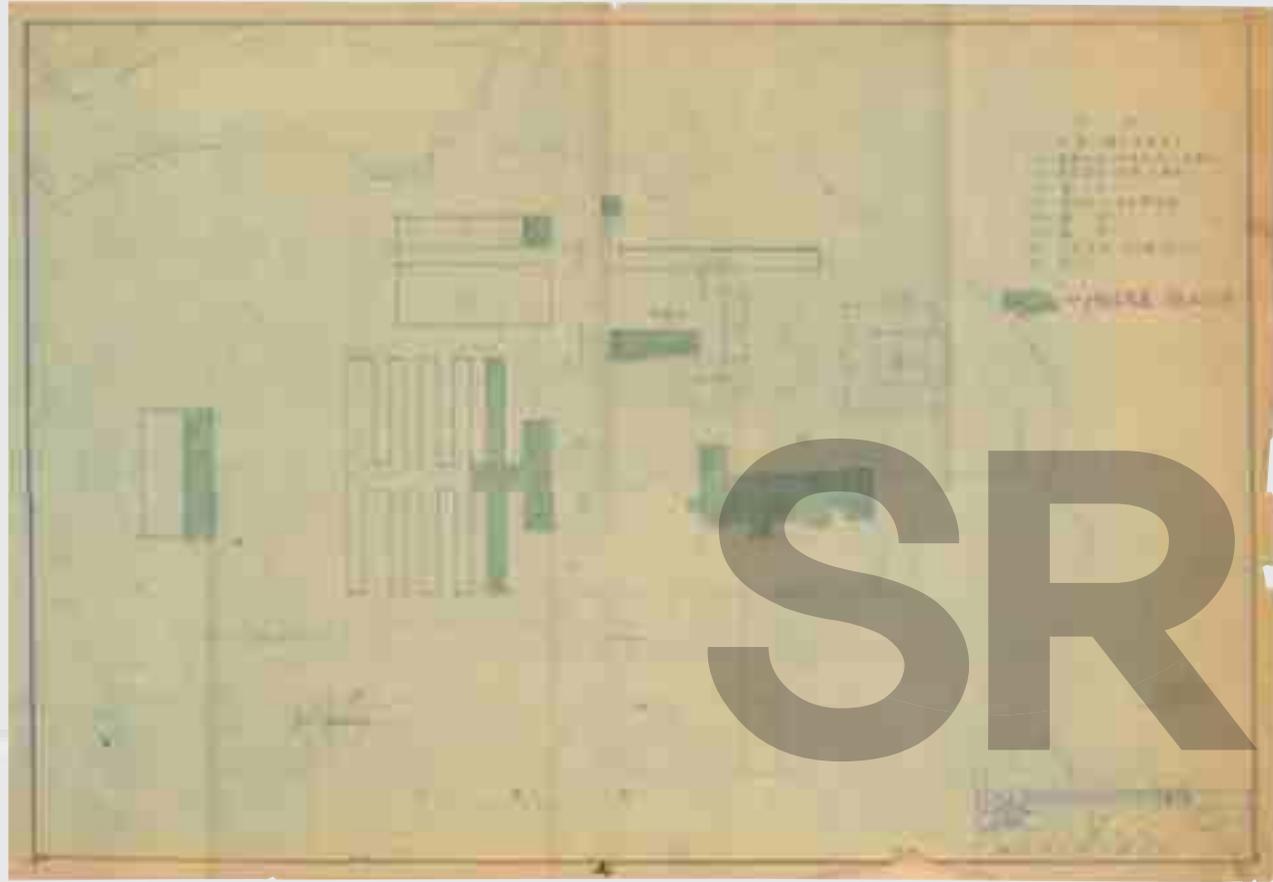


1967년 5월 20일 원예시험장 신축청사 낙성(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7년 원예시험장 본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1966년 배치도(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조감도(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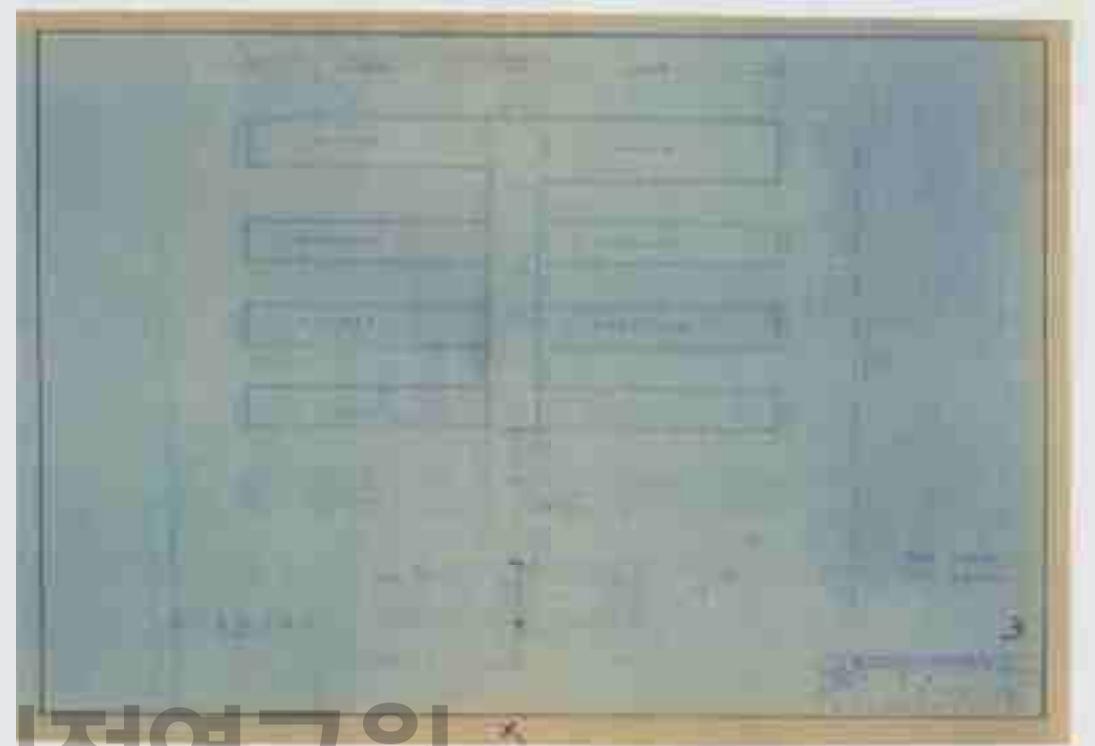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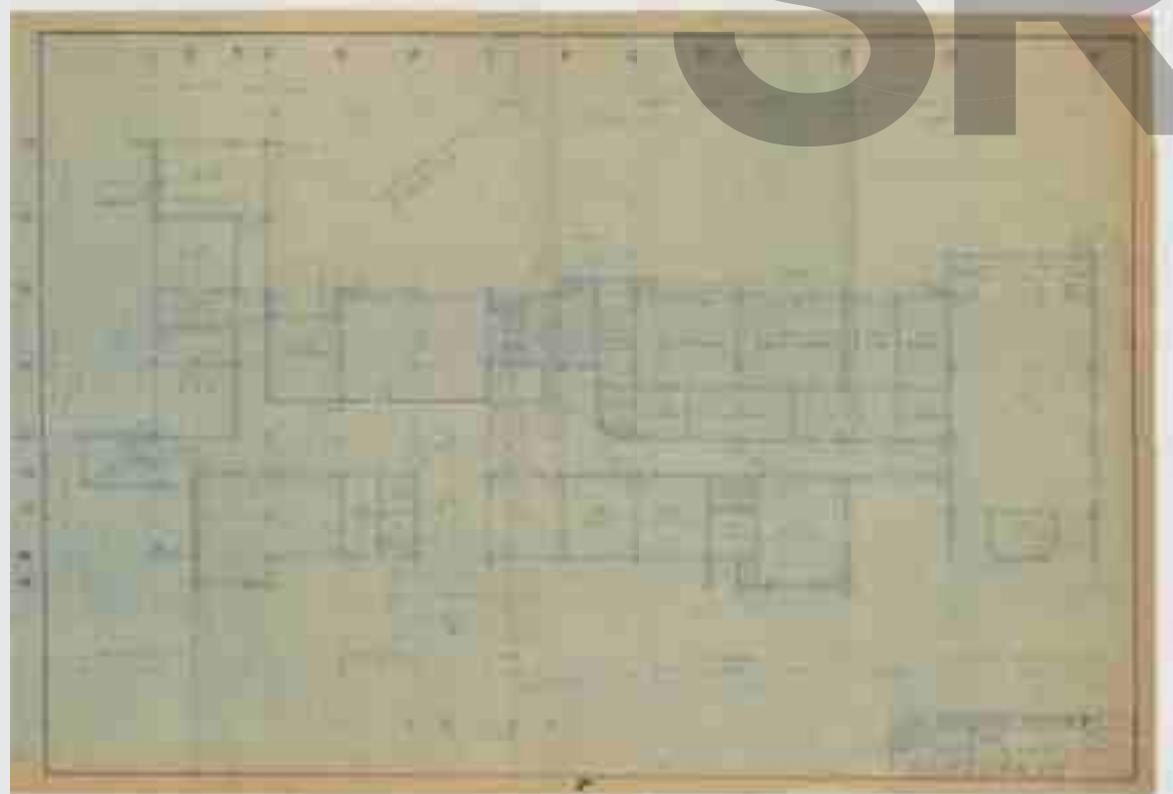




1966년 본관 투시도(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온실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본관 1층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온실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1년 설치된 과수연구소 전경(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1992년 원예시험장 포장 전경(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0년대 원예연구소 시험답



2000년대 원예연구소



2008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예연구센터



2015년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사 이전 & 개원 62주년 기념
 2015. 5. 19. ~ 2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당

3. 신제품 개발 : 플럼코트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강상조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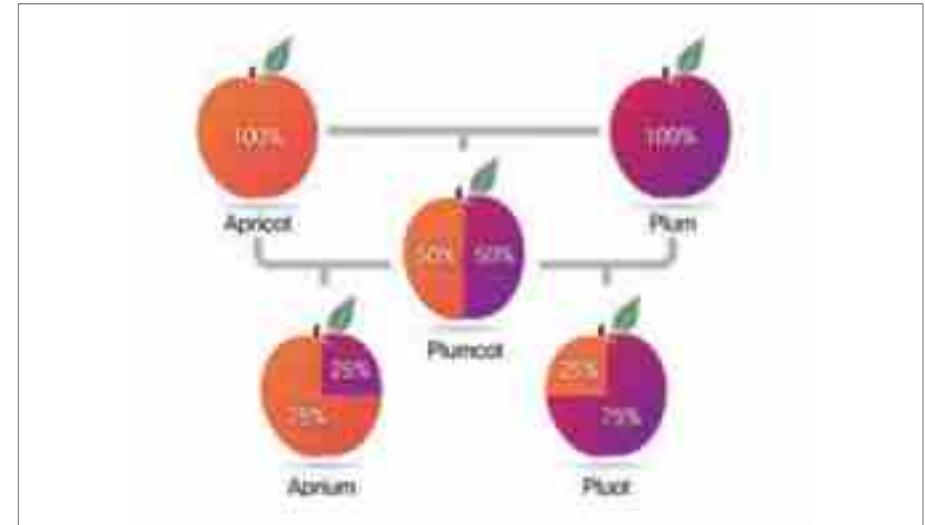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신제품 개발 업무에 대해 원예작물부 과수과에서 장기 근속한 강상조 전 원장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강상조가 초창기부터 연구에 참여한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과일이다. 자두를 뜻하는 Plum과 살구를 뜻하는 Apricot에서 '-cot'를 따와 플럼코트 (Plumcot)라는 이름을 탄생하였다.

강상조는 하나의 과일에서 살구 맛과 자두 맛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맛의 과일이 있다면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품종 개발을 시작하였다. 야심찬 시도였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성과를 보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품종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상조 :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엄청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품종 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위에 상사들은 그거 하지 말고 외국에서 좋은 품종 들여다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거 골라서 빨리 보급하는 도입 선발을 하라고 했어요. 어른들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지금 당장 좋은 품종을 원하는데 어느 세월에도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뚜렷하죠. 당시에는 로열티 개념이 없던 시절인데 저희같은 껌보들은 언젠가는 도입선발은 로열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배 육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략) 시대 상황으로는 도입 육종에서 교배 육종으로 넘어간다는 게 어려운 시기에 그쪽으로 도전을 했죠.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도입선발을 했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믿었던 강상조는 상사들의 꾸중을 피해 혼자만의 실험을 계속해 나갔다. 초창기에는 “숨어서 하다시피”했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오면서 차츰 상사들을 설득하였다.

한편, 육종 과정에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플럼코트의 낮은 교잡률이었다. 자두와 살구의 교배에는 성공했지만, 불친화성으로 플럼코트의 종자가 생길 확률이 0.1%에도 못 미쳤다.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이 상황을 타파하였다.



플럼코트 품종 개발

강상조 : 어느 날 고민하다가 꾀를 내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암나무와 수나무를 인접해서 심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충실하게 자라게 되죠. 그걸 교배하기 위해 사람이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하우스 안에 모기장을 씌우고 거기다 벌통을 갖다 놔 버리죠. 그러면 꽃이 한 그루에 수십만 개잖아요. “그래 되려면 되고 말 테면 말고 한번 해 봐라”하고 벌한테 일을 시켜놨더니 종자가 제법 나왔어요. 0.1% 교잡률이라고 하더라도 꽃이 워낙 많으니까.

처음에는 종자가 안 생긴다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에 교배를 통해 씨를 얻고 그 씨를 뿌려 나무를 키우고 다시 그 나무에서 씨를 얻는 일을 수년에 걸쳐서 하며 차츰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얻은 씨앗이 교배를 통해 얻은 씨앗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강상조 : 90년대 후반 그 당시 DNA를 검사하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한참 발전하는 중이라 찾아내는 것도 엄청 힘들죠.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는 자두 밴드도 있고 살구 밴드도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열매가 달리기 전에는 그래도 모르죠. 열매가 달린 걸 보니 이놈이 꽃은 자두 꽃인데 열매는 살구 같은 말이에요. 순데 꼭지는 또 자두 같아요. 그러니까 피노타입(phenotype, 표현형)하고 유전자 검사에 의한 제노타입(genotype,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거죠.

수년에 걸친 연구 끝에 플럼코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강상조는 플럼코트 1차 선발까

지 도맡았고 이후 후배들이 이어서 2차 선발, 현장 실증 실험 수행해 최종적으로 품종 등록에 성공하였다. 수십 년이 걸리는 작업이라 많은 사람의 협업이 필요한 공동 작업인 셈이다. 강상조는 이런 과도기를 거치며 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도입 선발의 비중이 작고 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현재 한국은 품종을 수출하는 20개국 중 하나로, 우수한 품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4. 연구자와 농부 사이

앞서 언급했듯 이렇게 탄생한 품종은 신품종으로 등록되기까지 품종의 생산성과 지역적 적응성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예작물부 채소과에서 장기 근속한 고관달 전 원장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일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고관달 : 당시 연구직 공무원이 휴일도 없고 밤낮이 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작물이거든요. 작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육종(새로운 품종 개발)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이 품종이 물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존 품종과 비교해서 햇빛의 요구도는 어떤지, 비료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재배 전반의 매뉴얼을 농업인에게 줘야 농업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 수박을 키운다고 하면 하우스에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연휴면 물을 주러 가야 해. 대신 줄 사람은 없고 연구자인 내가 급하니까. 그래서 뭐 정말 밤낮이 없죠. 당시만 해도 일반 농가는 1년에 농사를 한 번밖에 안 짓지만 우리는 하우스나 온실에서 지으니까 두 번도 짓고 세 번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쉴 때가 없어 365일. 농업인들은 쉴 때도 우리는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밤낮없이 일했어요.

연구 대상이 되는 작물의 특성상 연구자들도 몸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다. 고관달이 말하는 쉴 틈 없이 일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매일 옷을 2~3벌씩 챙겨 다녔다. 아침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하면 점심때에는 옷이 땀에 전부 젖어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점심을 못 먹을 정도였다. 오후 일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선풍기로 버티던 시절이었다. 또 일반 농가에 비해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오늘날에 비하면 아직 물 주는 시스템도 자동화가 되지 않았던 터라 주말에도 출근해 작물을 돌봐야 했다. 그럼에도 고관달은 그 시절을 즐겁게 일했던 시절로 기억한다. 일요일이면 예배 후 당연하게 가족들과 사무실로 향해 작물에 물을 줬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초기 독신자 숙소에 입숙한 직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뒷줄 왼쪽부터 임열재, 이정식, 이돈균, 이동아, 앞줄 김유환이다.

던 것도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한편, 온실 및 비닐하우스는 비교적 환경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온실 및 비닐하우스 밖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자연환경의 변화무쌍한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고관달 : 무 같은 근채류는 옮겨 심으면 뿌리가 예쁘질 않아 그래서 근채류는 다 직파하는 거야. 그게 8월 10일에서 8월 20일 사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여름 소나기가 자주 와. 장마는 지나고 소나기가 자주 오는데 무 심으려고 밭을 갈아놨는데 소나기가 오면 /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밭에 못 들어가요. 밭이 곤죽이 돼 갖고, 산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육중한 기계가 들어가면 떡이 돼요. 사람도 장화 신고 들어가면 푹푹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종 준비를 다 해놨는데 비 오면 난리가 나잖아. 그러면 천막지로 흙을 덮고 비닐도 덮고 두 줄이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비가 많이 오면 밭에 못 들어가.



고관달 원장

이러한 상황은 일반 연구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제품 등록을 앞두고 품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품종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시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일례로 총수확물의 평균 무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소나기 때문에 파종 시기가 연거푸 늦춰지면서 그해만 다른 해 대비 생산물 무게가 30%나 감소하는 일도 있었다. 또 한 번은 큰 태풍을 앞두고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적도 있다.

고관달 : 온실은 태풍이 불어도 웬만하면 파손이 안 돼서 중요한 거는 온실로 옮기는데 그럼에도 못 옮기는 것들이 있죠. 문제는 비닐하우스인데 태풍이 심하게 불면은 비닐하우스가 풍압에 의해서 파이프가 휘어져서 옆으로 넘어져. 근데 이번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정도로 바람이 분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해야 해. 비닐을 찢으면 파이프 골격이 되는 건 살고, 비닐을 안 찢으면 온 좋게 비닐하우스가 버틸 수도 있지만, 만약 하우스가 무너지면 철거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안에 연구하던 것들도 다 죽는 거지. 이제 비닐하우스 비닐을 찢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거야.

한 번의 선택이 한 해의 연구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팀마다 긴

회의 끝에 각자 최선의 결정을 내렸지만, 워낙 큰 태풍인 탓에 과학원 내 수십 개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농업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줄여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었다. 연구원 사람들끼리 종교가 없는 동료에게 “너희가 교회 다녀서 하느님에게 기도라도 해야지.”라는 농담을 나눌 정도로 사람이 모두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것뿐이었다.

물론 모든 기술 개발연구 프로젝트 상황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종류에 따라서 최신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구를 통해 농산물 저장에 관해 기존에 민간에서 사용하던 방식의 원리를 밝히고 응용하기도 한다.

강상조 : 농산물이 다 생물이니까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니까 품질 변화가 쉽게 와요.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 농산물의 호흡을 어떻게 억제해서 품질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대표적인 방법이 공기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호흡할 때는 산소를 먹어야 하죠. 그런데 산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과일과 채소는 빨리 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호흡을 못 하게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배합 비율을 작물마다 달리하면

SR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과수 저온저장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중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옴이나 창고에 저장하는 게 기술인 줄 알았는데 사실 관건은 온도 조절이라는 식으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죠.

당시 대통령이 농작물 품질 유지를 과제로 제시하며 산을 파서 농작물 저장 굴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과거 배추나 무를 땅에 묻어 두고 먹었던 개인적인 기억을 떠올린 것이었지만 최신 기술을 다루는 연구자가 평가하기에는 다소 현실성이지 않은 제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지시사업을 아예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온도를 통제하는 저온저장고였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민간 지식의 원리를 밝히고 이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과학원은 민간의 필요와 지식을 과학적 지식으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한편 변화하는 현재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5. 국내 품종 딸기 보급기

한편, 이런 인고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된 신품종을 실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이 압축적으로 담긴 것이 딸기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사례이다. 2002년 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10년 후부터 외국 품종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한국 농가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2005년 기준 한국 품종 점유율은 9.2%에 불과하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외국 품종이고 특히 일본 품종이 95.9%에 육박하는 상황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딸기연구사업단을 만들어 딸기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도맡게 했다. 고관달도 경북대학교 이우승 교수와 팀을 꾸려 사업공모에 응모하였다. 때는 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지도 이미 수년이 흘러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고관달은 당시 소장의 강한 권유로 5년 이내에 신품종 보급률을 50%에 도달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국내 품종 보급률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파격적인 목표였다. 실제로 공모 심사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고관달에게도 직을 거는 도전이었다. 놀랍게도 딸기연구사업단은 4년 이내에 신품종 보급률이 60%대에 이르며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

고관달 : 품종이 가진 성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재배 매뉴얼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최소 7년에서 10



설향

아리향

년은 걸려요. 그런데 그때는 그만큼 시간을 소모해 매뉴얼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예산이 충분하면 팀을 나눠서 비료, 물, 햇빛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고 또 팀을 합쳐서 상호작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딸기 연구하는 인력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그것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당시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일단 농가에 보급한다. 근데 농가들 중에도 실험 정신이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실험을 나름대로 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재배했더니 좋았다는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바로 그대로 재현 실험을 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재현에 성공하면 바로 기술로 적용하는 거야.

원래 방식대로 하면 실험 설계에 3~4년이 소요되지만, 농가와 협업하고 민간의 데이터를 적극 수용한 덕에 재배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신품종으로 등록되기 위해 직무육성품종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신품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우월성, 독창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 설향 딸기의 품종선정심의위원회가 2005년에 열렸고 이 자리에 고관달도 심의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하였다. 당시 설향은 재배 수량도 많고 비료 반응도 우수하고 재배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탄저병에 취약한 편이고 쉽게 딸기가 물러져 유통성이 낮다는 단점이 지적되었고, 이 때문에 당시 심의 과정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였다. 그때 한 심사위원이 앞으로 생과일주스 시장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판되지 않아도 충분히 소비될 수 있다고 다른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며 품종으로 등록시켰다. 이후 신품종 보급 후 농가에 물 주는 방법을 바꾸고 과육을 단단하게 하는 비료를 사용하는 등 재배법을 개선해서 단단한 딸기를 만들어냈다. 재배법을 통해 기존의 단점이 개선된 후에는 급속도로 보급이 확대되었다.

한편 딸기연구사업단 연구 중인 2006년 일본과 딸기 로열티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 측은 딸기 생산자 조희 회장이 협상대표로 나섰고 일본에서는 품종 개발자가 나왔다. 개인이 소유한 품종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협상이지만 한일 국가 간에 첫 품종 사용료 지급 협상이었기에 양 국가 공무원도 협상장에 참석하였다. 딸기사업단 출범 당시와 비교해 국내 품종이 보급되는 상황이라 한국 측도 협상력이 생긴 덕에 일본 품종 개발자 측에서도 애초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로열티를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국내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협상 결과가 크게 실망스럽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현재 국내 육성 딸기품종 보급률은 2015년 90%, 2021년에는 96.3%에 다다랐고 현재는 해외에 국내 품종 딸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비교적 단기간에 거둔 이례적인 성과에는 연구원, 학계, 농가의 협업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더불어 고관달은 국내 품종 보급 속도가 더딘 과수 분야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해살이 채소인 딸기와 달리 과수 분야는 묘목을 심어 열매가 맺히는데 3~4년, 순수익이 얻는 데까지는 평균 8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처음에 좋은 품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아무리 국내 신품종을 개발되어도 농가의 입장에서는 현재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존 묘목을 베고 수년 후에 수익이 날지 불확실한 신품종을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란 쉽지 않다. 과수 분야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빛을 내길 바란다.

6. 찾아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품종 개발 및 보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가와 협업하게 되지만,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기술지원과에는 분야별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직접 방문해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고관달 : 연초에 설계 심의회를 해요.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건데 연구원과 보조원이 팀을 이뤄서 2~4개의 과제를 수행해요. 그러면 하나는 지금 당장 수요는 적지만 미래를 보고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를 하는 거고, 한 과제는 지금 시급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과제를 구성하죠. 과제 구성을 하려면 현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 1년에 몇 차례씩 현장에 가봐야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문제의 경중은 어떠한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야 연구 과제를 설정할 수 있죠. (중

략) 농가에서 SOS를 치면 우리가 가서 문제를 진단하고 관리법을 알려 주지만 기술지원과에서 당장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걸 가져다 과제화하는 거야.

기술지원과가 처음 만들어질 될 당시만 해도 과학원 내부에서는 “이런 일까지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주요 업무였던 연구 대신 현장 지원을 도맡는 상황이 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생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려 섞인 시작과 달리 기술지원 활동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할 수 있게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기술지원 업무는 연구자가 가진 지식을 전달해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연구자의 말 한마디가 한 해 농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에 큰 책임감이 따른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다만 때로는 농가가 가진 문제가 과학적 지식으로 명쾌한 답을 내릴 수만은 없는 성격의 것이기도 하다. 고관달은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했던 시기를 설명하며 자신이 ‘기본 좋은 뇌물’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였다.

고관달 : 한 번은 경상남도 남지에 풋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갔어요. 이분은 원래 계획은 겨울을 나면서 풋고추 농사를 지으려 했던 건데 당시 기름값이 크게 올라 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기름값을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고추를 베고 농사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를 묻더라고. 내가 그때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당장은 어려워서 참고 가는 게 낫겠다고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 3~4일간 계속 밤 11시 넘어서 그분이 전화를 하는 거야. 낮에는 전화를 안 되니까. 휴대전화가 아니고 일반 전화기 쓰던 시절이니까. 전화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아내와 부모님이 도저히 동의를 못 해서 베어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이야.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주겠다고 해서 어르신들과도 통화를 하고 부인과도 통화를 해서 결국 안 베고 재배하는 걸로 했어. 그리고 그해에 3년치 소득을 한 번에 냈어. 그해 대부분 농가에서 다 뻗었으니까 금고추가 된 거야. 그래서 겨울 한 구정 막 지났을 때 갈아, 풋고추 한 박스에 10만 원도 더하던 시절에 한 박스를 보내 줘서 전 직원이 조금씩 나눠 가져간 기억이 있거든. 그때 기분 최고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현장 지원 활동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고 재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농민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절박한 농민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했던 마음은 감사함이 담긴 고추 한 상자도 되돌아왔다.



1967년 청사 준공과 함께 연구시설이 이목동으로 모이던 시절(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1986년 이목동 연구설비가 포화상태에 도달했던 시절(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1997년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가 합쳐진 원예연구소 시절(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2003년 설립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던 시절(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SR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6년



1974년



2006년



2014년



1985년



1995년



2020년



2024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목동)의 변화(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실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농업인들이 준 거라 더 기분이 좋고 뜻깊죠.

7. 이목동 시대를 마무리하며

2015년 국가 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과학원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당시 원장으로 근무했던 고관달은 연구원 내부 반응은 대개 이런 변화를 반겼다고 기억한다.

고관달 : 이목동에 있으면서 연구원들의 욕심은 뭐였냐면 더 일을 벌이고 싶은데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온실도 더 짓고 싶고 과수원도 면적이 더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했죠. 품종을 교배하면 씨앗이 나오고 이걸 심어서 결과를 봐야 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사과나무에 접을 붙여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려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다들 이사 가면 부지가 넓어지거나 좋다고 환영을 했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이곳이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연구소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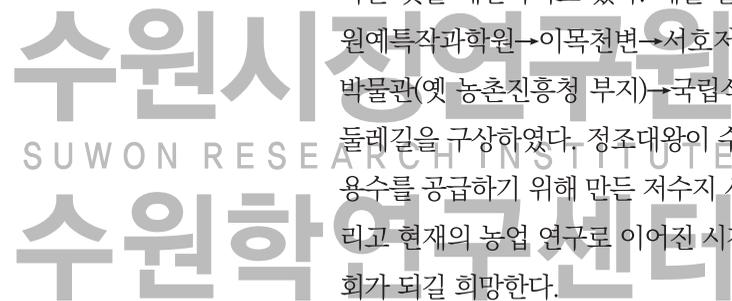
연구공간 부족 문제는 앞서 강상조가 플럼코트 품종을 개발할 때부터 맞닥뜨렸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특히 복숭아, 살구, 자두 등의 과수는 한 번 심었던 땅에 연작하면 기지현상으로 재배가 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강상조는 다음번 심을 땅을 찾는 것이 매년 곤혹이었다고 기억하였다. 넓은 부지와 최신 시설을 갖춘 새 건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연구원 대부분은 긍정적 반응이었다. 이후 대대적인 이전 작업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이목동에 있지는 않고 구술자들이 퇴직한 지도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여전히 수원에 남아 농업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이목동에서의 땀 흘린 시간들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생생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

강상조 : 당시에는 육종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한 사이클, 그러니까 교배해서 좋은 품종을 골라내고, 보급하는 데까지 30~40년 걸려요. 처음에는 불만이었죠. 나는 왜 이런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가? 불만을 가졌었는데 육종은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그거는 농업인이 최소 20년 30년은 쓸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 좋은 걸 만들면 그 기여도는 오래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여태껏 없던 걸 만들어 가니까 (중략) 지금도 농업인들 만났을 때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품종 묘새 잘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제 보람이죠.

고관달 : 제가 일을 하면서 감사패를 여러 개 받았는데 그게 농업인들이 주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해 줘서

‘머나먼 길’이라는 강상조의 표현대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의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성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일이었다.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한 길이다. 그럼에도 사명감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시간이 지나면 후배들이 이어받아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오늘날 한국이 빠른 농업 기술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품종을 보유하기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임에도 사명감으로 연구에 몰두한 과학원 사람들이 있었다.

한편 강상조는 이목동에서의 과학원 시기를 기념하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에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이목동 475번지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기념탑 또는 기념비를 세우면 주민들에게도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더불어 수원시가 정조대왕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이를 근현대 농업 연구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옛 농업 연구 탐방길’이라는 이름으로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목천변→서호저수지→(우장춘 박사의 묘소가 있는) 여기산→국립농업박물관(옛 농촌진흥청 부지)→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옛 국립식량과학원 본원)를 잇는 둘레길을 구상하였다.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세울 때 식량을 생산할 둔전을 만들면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 서호로부터 한국 원예연구 1세대 연구자 우장춘 박사, 그리고 현재의 농업 연구로 이어진 시간, 직접 걸으며 이 시간을 일상에서 다시금 떠올리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농원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 이목동 농업공간의 재편과 해체

SRI

수원시정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수원의 북쪽, 장안구에 위치한 이목동은 수원에서 크게 주목받는 지역은 아니었다. 영통이나 광교 등의 신도시처럼 규모가 크거나 주민들의 숫자가 많지도, 직접 통과하는 전철·지하철 노선도 없기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목동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동네이다. 각종 편의시설과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며,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동네로, 다양한 장점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경수대로, 노송로, 서부우회도로, 북수원IC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지역이라 교통도 편리하다.

이목동은 수원을 비롯해 인근 경기도와 서울 주민들에게 많은 추억과 꿈을 안겨준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개발,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한때 이목동 일대에는 유명한 농원과 가든형 식당이 여럿 들어서 있었다. 가족 나들이, 집안 잔치, 직장 회식, 데이트, 결혼식, 외식, 학생들의 견학과 소풍 등 인생에서 기념할 만한 소중한 순간이 이곳에서 펼쳐졌다. 이목동의 가든형 음식점은 묘목, 꽃, 과일 등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원'에서 시작하여, 도심 속 전원을 누리며 식사할 수 있는 '가든형 식당'으로 변모한 곳들이다. 이목동 농원·식당의 특징과 변화상을 살펴보면, 이목동의 경관, 주민들의 삶, 여가와 외식 문화의 변천, 이목동이 수원에서 지닌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목동에서 농원을 창업한 1세대들이 모두 작고하였기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원과 가든을 운영하며 현대화·상업화시킨 2세대들의 경험과 기억은 이목동을 그려 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목동에 들어선 첫 번째 농원인 '청은농원'을 운영했던 김진남, '송정가든'을 운영했던 유용수, 현재까지 이목동에서 '삼풍가든'을 운영하고 있는 최창순과의 구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신문자료, 각종 기록물 등의 문헌자료와 사진, 지도 등을 참고하여 이목동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이목동에서 농원·가든을 운영했던 분 중 인터

이승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1979년 이목동 농원 위치(1974년 항공사진)

- ① 청은농원
- ② 이목농원
- ③ 안성농원
- ④ 도아포도원
- ⑤ 흑장원
- ⑥ 평화농원
- ⑦ 청산농원
- ⑧ 자연농원
- ⑨ 노송농원
- ⑩ 삼풍농원
- ⑪ 화성농원
- ⑫ 부국농원
- ⑬ 중앙농원
- ⑭ 태극농원
- ⑮ 대지농원
- ⑯ 송정농원
- ⑰ 중국농원
- ⑱ 세일농원

뷰를 해 주신 구술자의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이목동에서 농원·가든을 운영한 구술자의 인적사항

구술자	주요 활동
김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생, 수원 출생. 이목동 경주 김씨 집성촌에서 17대째 거주한 토박이 - 1960년대 후반 아버지 김인기(1915년생)가 아들들과 힘을 합쳐 허드레 땅을 개간하여 이목동에 처음으로 농원을 만들고, 관광사업화함 -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목동에 총 4,800평 규모로 '청은농원'을 운영함 - 1970년대에 4~5년간 이목동 통장 역임 -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 개발 때 청은농원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1988년경 폐업
유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생, 수원 출생 - 아버지 유성규와 이목동에 4,500평 규모의 '송정농원' 운영 - 1997년 IMF외환위기 직전 폐업하고, 경기대 후문 부근에서 1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광고신도시 개발로 폐업 - 현재 강원도 횡성에서 블루베리, 오디 등을 재배하는 '송정농원' 운영
최창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생 - 건설부 차관이었던 아버지 최종성(1927년생)이 1969년 이목동에 삼풍농원 개원 - 가업을 물려받아 2024년 현재까지 삼풍가든을 운영

수원시정연구원

1. 허드레 땅을 개간하여 만든 농원

수원학연구원

이목동은 현재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지역이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는 농촌 마을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과거에는 다소 빈곤한 마을에 속하였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경제 수준이 크게 높아져 모범적인 마을로 손꼽혔다. 『조선일보』 1954년 10월 12일자 기사에서는 “농가 67호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으로 소가 45두, 돼지가 110두가 되는 부유한 유축농촌(有畜農村)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1955년에는 “10년 전의 빈촌에서 모범농촌이 되었다.”는 내용의 「모범농촌탐방기」(『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에서는 이목동 주민들을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목동은 변두리 농촌 마을로 논밭이 경사지고 메말라서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주민들의 자립 의지, 단결력, 공동체 의식, 향학열 등이 높아 빠르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목동에서 빈 땅을 일구어 개발한 최초의 농원은 김인기의 청은농원(靑隱農園)이다. 김인기는 1915년 일형면 이목리 139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이목리는 경주 김씨가 일찍부터 세거한 곳으로, 김인기는 선조 대부터 살아온 이목동의 터줏대감이다. 그는 수원공립보통학교(신평초등학교의 전신), 수원고등농림학교(서울대 농과대학 전신) 부설 실업보습학교를 졸업하였다. 수원군 반월면 서기로 재직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이후 경기도 지방 삼림



1970년대 청은농원 김인기 부부와 아들 김진남(김진남 제공)

주사와 서울대학교(수원) 농과대학 임업 기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하였다.

1960년대 후반 퇴임 후 생활을 설계하면서, 농사만 지어서는 큰 수입을 얻기 힘들니 농업 이외의 소득을 만들자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고향인 이목동에 자신의 호인 '청은(靑隱)'을 넣어 개인 농장인 청은농원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산림과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국토를 보호하자는 산림녹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나무 심기 운동이 확산되었고, 산림감독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목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당시 이목동은 변두리에 해당되어 허드레 땅이 상당히 저렴했기에 그는 꽤 넓은 토지를 매입했고, 아들과 힘을 합쳐 밭을 개간하여 농원으로 만들었다. 땅에 모래를 가져다 부어 길을 만들고, 묘목을 심었다. 빈 땅이 농원이 되고,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지기까지 다섯 부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생활을 지속하였다.

1952년생인 김진남은 당시 10대 학생 시절이었는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늘 농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청은농원과 백화농원(1982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에서 일을 거들었다. 김진남의 가족들은 초창기에는 산수유, 회양목, 탕자나무, 꽃나무 등을 주로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꽃장사들, 조경업자들이 청은농원에 와서 이를 구입하였다. 훗날 통일이 되면 북한을 통해 중국에 산수유를 한약재로 수출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특히 산수유나무를 많이 파종했다고 한다. 농업 외 소득 증대를 꾀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청은농원은 서울농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김인기의 경험과 기술, 젊은 아들들의 열정과 패기가 합세하여 점차 자리를 잡아 갔다.

삼풍농원은 이목동 농원 중 후발 주자였지만,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농원이 되었다. 1927년생인 최종성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고, 이후 건설부 기획관리실장, 건설부 차관, 민주공화당 정책연구실 차장, 제8대 충남 보령군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엘리트이다. 최종성은 서호천 하천부지 1만 평을 불하받아 1969년 삼풍농원을 개원하였다. 삼풍농원은 수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부지에 어린이 놀장, 테니스코트, 유료 낚시터, 작은 동물원, 양어장까지 갖추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대화의 광장' 등 공식적인 모임도 삼풍농원에서 진행되었다.

제3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겪으며 군인으로 제1의 인생을 살았고, 불철주야 국토건설의 건설관료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황무지(荒蕪地)나 다름없는 수원의 땅, 9,000여 평을 개간해 '삼풍농원(三豊農園)'을 만들어 가꾸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모래밭이

나 다름없는 삼풍농원 땅 1만여 평을 마련한 때는 1969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는데 30여 년 동안 개간하고 가꾸어서 지금과 같은 나무숲을 만든 것이다. 원래는 하천부지였다.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아 내가 하천개수를 한 것이다. 풀이 나면 전부 깎아서 퇴비를 만들어 깔아 주니 배수도 잘되고 나무들이 쑥쑥 컸다. 나무 욕심이 많다 보니 어디에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면 구해 오고, 또 수목원에서 몇 주씩 사다 심었다. 처음에는 뒤에 산이 있었고 그곳에 내 못자리도 봐두었는데 도로가 나는 바람에 산이 다 잘려 나간 것은 지금도 아쉬운 대목이다.〈최종성, 『금잔디동산 수풀은 우거지고』, 2013〉

2. 농원의 관광사업화 : 나들이와 데이트의 명소가 되다

1960~1970년대는 경기도 전역에서 농원이 설립되던 시기였다. 당시 수원 이목동 가까이에는 푸른지대와 노송지대가 있었다. '푸른지대'는 권선구 초입 서울대 농대 뒤편, 탑동 505번지 일대의 푸른 들판을 일컫는다. 1950년대부터 박준철이 딸기와 포도 등을 경작하던 과수원이 있었는데, 국내 최초 신품종 딸기인 '대학 1호' 딸기로 유명하였다. 이 과수원이 인기를 끌자 인근 농가도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21만여㎡에 달하는 일대가 딸기밭으로 성업하

삼풍농원 전경(1977년, 수원시청 제공)





1973년 이목동 농원에서 딸기밭을 일구는 손길(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이목동 농원에서 딸기밭을 일구는 손길(수원박물관 제공)

며 ‘푸른지대’라는 이름을 얻었다(『수원일보』 2023년 6월 13일). ‘노송지대’는 지지대고개 정상에서 경수국도를 따라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심겨 있는 약 5km의 구간으로, 정조의 효심과 사도세자의 슬픈 역사를 함축한 장소이다. 푸른지대는 골프장으로 바뀌었고, 노송지대는 노송과 화초가 많아 현재까지도 산책을 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곳이다. 푸른지대는 일간지 등을 통해 개장 소식과 교통편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었고,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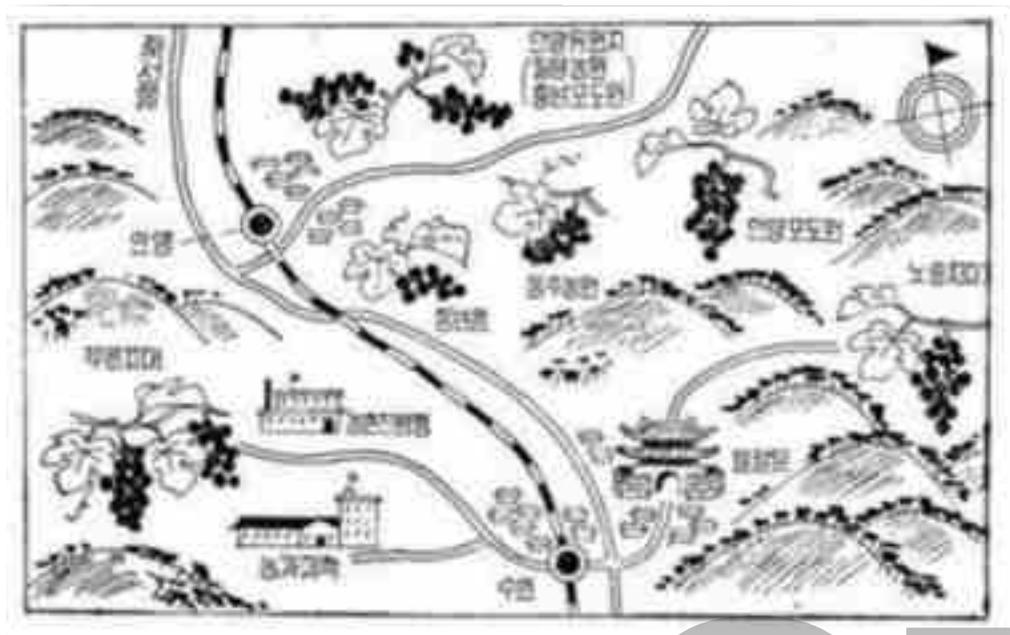
푸른지대 등 금주부터 제철 수원에 자리 잡은 관광농원 「푸른지대」가 이번 일요일(6월 2일)에 개장한다.〈『수원 딸기밭』, 『조선일보』 1968년 5월 30일〉

5월이 오면 푸른지대의 딸기가 선을 보이기 시작한다. 수원까지의 교통은 버스, 기차 모두 이용하기 편하다. 을지로2가 쌍룡빌딩 앞에서 유신고속버스가 오전 7시부터 15분 간격으로 떠난다.〈『사적의 고장 수원 일대』, 『조선일보』 1971년 4월 9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인기의 가족은 경기도 일대의 다른 농원에도 종종 답사를 가곤 했다. 청은농원은 꽃과 나무를 재배하고 판매하면서, 한편으로는 딸기를 심어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딸기를 사 먹는 운영 방식을 시작하였다. 수원이 딸기 생산지로 이미 유명했기에 홍보하기에도 수월하였다. 판매 가격은 일반 시장보다 저렴했지만, 산지 직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상당한 수익이 되었다. 생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지 않더라도, 직접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관광사업이 된 것이다. 청은농원은 수목이 아름답게 우거져 경치가 훌륭하고, 공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관광을 오게 되었다. 어른들, 가족 단위 나들이객뿐 아니라, 유치원생들의 견학 코스이기도 했다.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유치원생들이 도착하면, 당시 50대였던 김인기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꽃나무와 과일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줬다고 한다. 1년 중 봄, 여름, 가을에는 나무와 꽃을 가꾸고, 여름 두 달간은 농원을 구경하며 딸기를 먹는 관광객을 맞이하였다. 관광객 숫자가 커지면서 농원의 규모도 점차 늘어서, 1농장, 2농장, 3농장까지 만들었고, 이를 합하면 총 4,800평 크기였다.



수원 푸른지대와 노송지대, 안양유원지 일대의 포도밭과 딸기밭(『조선일보』 1970년 8월 8일)

청은농원을 시작으로 이목동 일대에 송정농원, 삼풍농원, 경남농원, 부곡농원 등이 속속 생겼다. 청은농원과 송정농원은 수원 주민이 만들었고, 나머지는 농원 설립 붐을 타고, 이목동 일대의 입지와 경관을 보고 외지에서 들어와 시작한 사람들이다.

송정농원을 시작한 유성규는 수원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며 운전 및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퇴직 후 평당 7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허드레 토지를 3,000평 정도 구입하여 농원을 운영하다가, 이후 더 사들여 4,500평까지 규모를 늘렸다. 1960~1970년대 이목동은 버려진 허드레 땅, 주인 없는 토지들이 꽤 있었다. 습기가 많아서 벼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못했으나, 포도 농사를 짓기에는 상관없었다. 유성규는 소나무 정자가 있는 농원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에서 소나무 '송(松)'자에, 정자 '정(亭)'자를 써서 '송정농원'을 만들고, 포도밭을 운영하였다. 청은농원이 각종 나무, 꽃, 딸기를 함께 재배한 데 비하여, 송정농원은 포도 농사만 짓다가 수확량과 수익 증대를 고려하여 딸기 농사를 병행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치 좋은 농원에 와서 숲과 자연을 즐기며 갓 딴 싱싱한 딸기를 먹는다는 것에 매료되었기에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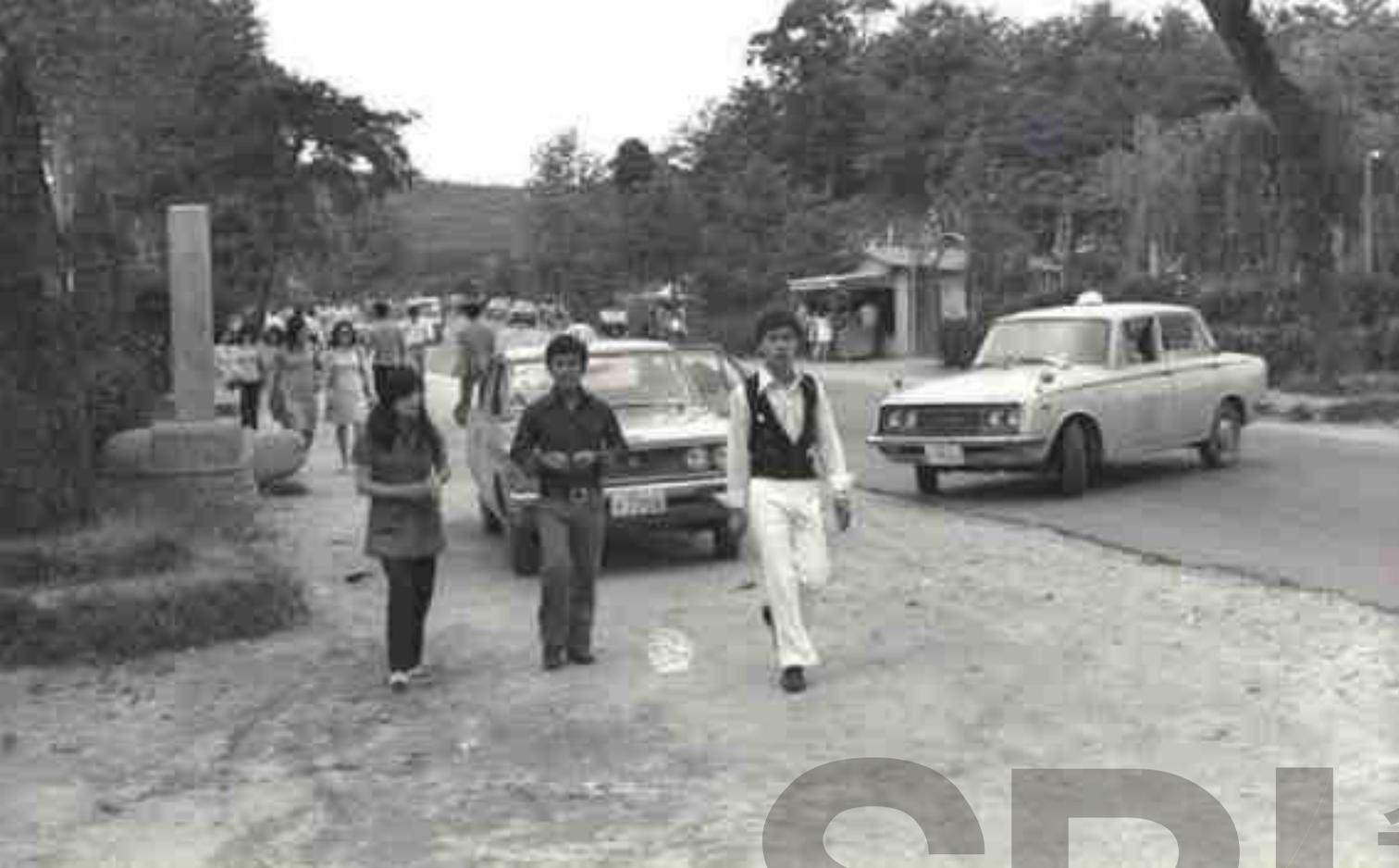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부곡농원(수원박물관 제공)

유용수 : 아버지가 하루는 그리시더라고요. “아! 우리도 딸기(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러셨어요 “아, 포도밭도 힘든데 딸기까지 또 하나?”고. 가을에만 수확이, 봄에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 수입, 가을 수입을 하자. 전적으로 그냥 딸기밭이 아니라, 포도나무 밑에다가 이모작을 하는 것을 심자!”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밑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세 줄, 세 줄 해서, 쪽 심었죠. 근데 그렇게 심으니까 딸기가, 그 당시만 해도 컷 과일로서 유리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딸기 심는 거죠. 손님들이 와서 사면 그걸 깎아서, 설랑 봉지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설랑하고 같이 갖다. 그럼 그제 도시에서는 하나의, 야외에 나와서 처음 먹는 과일이면서 생동감 있잖아요. 과일을 직접 농장에서 먹는다는 그런 생각, 그게 차이가 많은 거죠!

들판의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 돛자리를 펴거나, 냇가 평상 위에 앉으면, 종업원들이 포도와 딸기를 씻어 작은 상에 설탕 그릇과 함께 내놓았다. 관광객들은 과일을 직접 따기도 하고, 근(斤) 또는 관(貫) 단위로 사서 귀가하기도 했다. 농원은 별도로 입장료는 없었고, 과일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나가도 무방하였다. 농원에는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 세척하여 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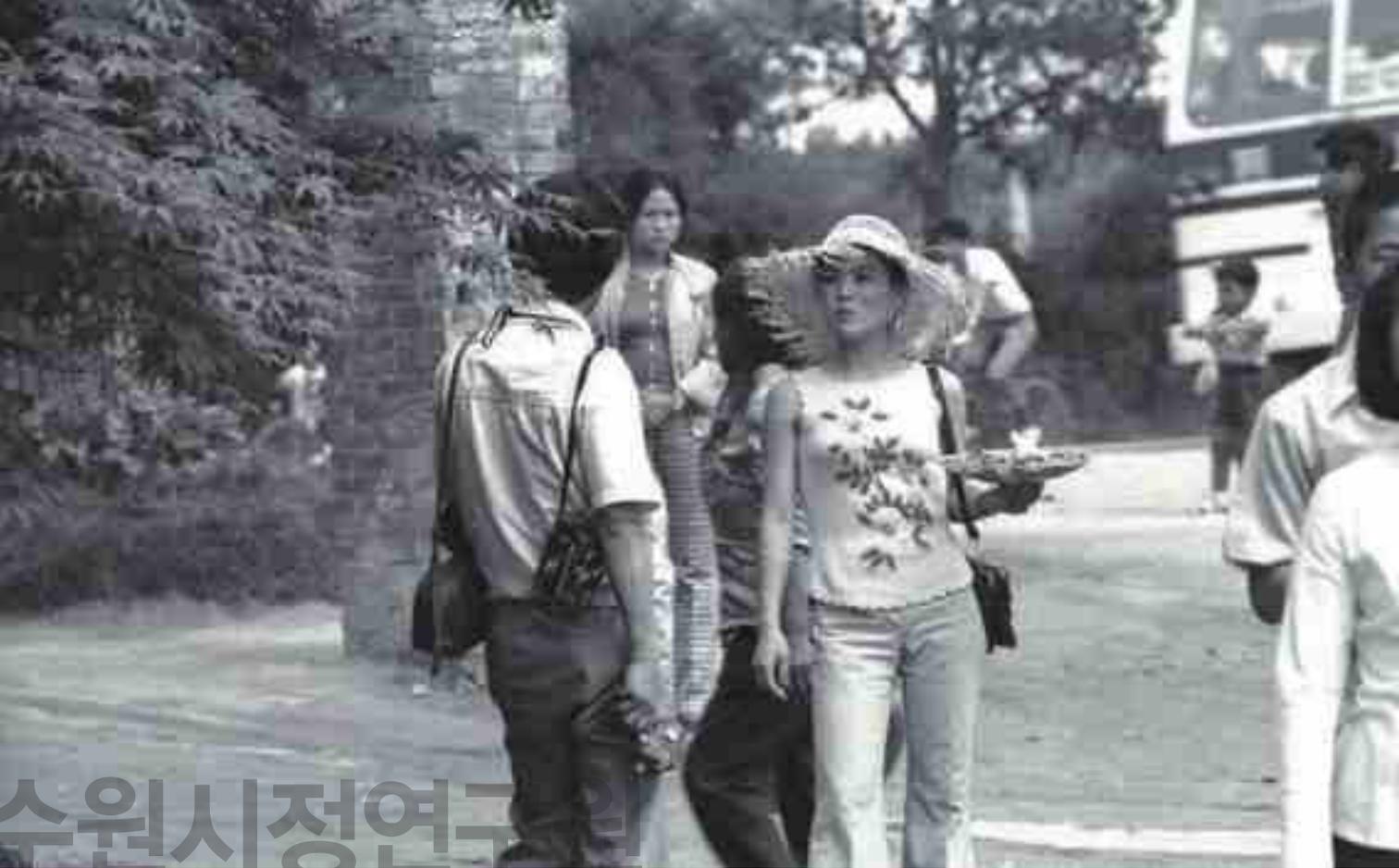


1973년 노송지대 딸기밭을 찾은 행락객(수원박물관 제공)

이나 상에 담아 옮기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무게를 재는 사람 등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에 대부분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되었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가족 단위의 나들이 손님,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숲과 과일을 즐기고 싶은 이들, 직장인들의 회식과 야유회, 어린이들의 견학 등으로 이목동의 농원은 큰 사랑을 받았다.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청은농원은 버스에서 내려서 1km 정도의 비포장도로를 걸어 들어가야 됐는데, 초여름이 되면 예쁜 옷과 화려한 양산을 든 멋쟁이 여성들의 행렬이 즐비하였다고 한다. 농원 초입에 길게 늘어진 자두나무가 터널을 이루어 운치가 가득하였다.

1970년대 중반쯤 되어 농원을 만든 아버지 세대가 고령이 되고 아들들이 20대 청년이 되고 제대하면서, 2세가 운영을 전담하게 되었다. 청은농원과 송정농원은 농원이 위치한 자연 환경, 입지 등을 살려 인테리어와 특색을 갖추어 나갔다. 김진남은 농원 안에 연못을 만들어, 잉어가 노니는 것도 보고, 방문객들이 건빵도 던질 수 있도록 했다. 유용수는 농원 안에 풍차를 직접 만들고, 8인치 스피커 16개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희망하는 팝송과 대중가요 등을 틀어 줬다.

삼풍농원은 초기에 포도와 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해 수익을 올렸는데, 양어장 시설 등이



1973년 노송지대 딸기밭을 찾은 행락객(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재단

있어 수원 일대 기업들의 야유회 장소로도 각광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중반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후, 복구작업을 계기로 수영장, 방갈로, 예식장, 피로연장, 카페, 연못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나갔다. 이에 1980년대 중반에 삼풍농원은 다양한 시설과 각종 수목(樹木)이 우거진 경관의 휴식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농업을 했다. 포도, 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해 짝짤한 수익을 올렸다. 초창기만 해도 봄에는 딸기, 가을에는 포도농장으로 소문이 나고 양어장 등의 시설이 있다 보니 삼풍농원은 수원 근방 기업의 사원야유회 장소로 많이 쓰였다. 또 경치가 좋다 보니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고 딸기나 포도를 먹으러 가족이나 단체들이 찾아왔다. (중략)

1970년대 중반에 큰 수해를 입었다. 대홍수로 양어장이 다 쓸려 나갈 정도로 피해를 입어서 두어 달 동안 문을 닫고 복구를 해야 했다. 마침 그때 내가 조경공사 사장을 했던 시기여서 농원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시설도 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수영장을 만들고 그다음으로는 예식장을 만들었다. 수영장의 부대시설로 방갈로도 지었는데 남녀가 와서 혼숙하는 일이 잦아지며 퇴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1970년 노송지대 농원 포도밭(경기도청 제공)

1970년 노송지대 농원 포도밭(경기도청 제공)



1975년 삼풍농원(수원박물관 제공)

지금과 같은 수영장, 방갈로, 예식장, 피로연장, 식당, 연못, 야외예식장, 카페를 만들고 각종 수목(樹木)이 우거진 경관의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은 내가 퇴임하고 나서였다. 그렇다고 지금이 풍부해서 각종 시설을 지은 것은 아니다. 수영장을 지어 거기서 번 돈으로 본관을 짓고, 방갈로를 짓고, 그다음에 예식장 짓고, 이런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도 건축 공사를 안 한 해가 없을 정도였다. 아마도 군인 시절의 공병, 행정관료로서의 건설, 조정 등으로 국토건설을 설계하고 만든 경험의 되새김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때만 해도 수원시가 지원도 해 주었고 여름방학 때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체험 삼아 일도 많이 해 주었다. 특히 수해가 났을 때 학생들이 냇가도 복구하고 돌쌓기도 해 주었던 기억이 새롭다. <최종성, 『금잔디동산 수풀은 우거지고』, 2013>

1976년 신문 기사를 보면, 이목동 일대 농원의 개수, 규모, 인기를 얻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깨끗하게 포장된 경부국도 좌우로 울창한 노송밭에 자리한 20여 개소의 포도농원은 딸기로 유명한 푸른지대와 함께 그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 광고산 깊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냇물 소리와 쓰르라미 울음소리에 귀를 적시면서 여름내 알알이 영근 포도알을 깨물면 공해에 시달렸던 도시인의 가슴도 함께 트이는 상쾌감이 전신을 매료시킨다. 노송지대 내 삼풍·청은·종곡·태극·경남·부곡 등 20여 개 농원들은 이미 개장을 했거나 오는 주말부터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캠펠 품종 1만 평을 재배한 삼풍농원은 수원시에서 택시요금 4백 70원, 시내버스에서 내려 도보로 5분 거리. 삼풍농원은 어린이 풀, 테니스코트, 유료낚시터, 작은 동물원, 양어장까지 갖추어 놓고 있다. 1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 농원은 30여 개소의 휴게소를 노송 그늘에 마련, 캠펠 품종 포도를 1관에 1천 6백 원씩 팔고 있다. 또 환경이 좋기로 이름난 청은농원은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포도와 식사를 겸할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 놓아 가족 동반의 휴게소로 인기. <‘싱그러운 늦여름의 미각 - 포도원에의 초대’, 『경향신문』 1976년 8월 26일>



이목동 포도밭을 소개하는 기사(‘싱그러운 늦여름의 미각 - 포도원에의 초대’, 『경향신문』 1976년 8월 26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8년 삼풍농원 수영장(수원박물관 제공)



1978년 삼풍농원 수영장(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농원을 찾은 손님(수원박물관 제공)

STEP 1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농원, 도심 속 가든형 식당으로 변모하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꽃과 나무, 과일을 즐길 수 있는 나들이 명소인 이목동의 농원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들어서며 단순한 농원에 머무르지 않고 여가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변해 갔다. 이 시기에 이목동 농원들은 하나둘씩 식당으로 바뀌었다. 농원이 음식점으로 변모한 데는 관광객들의 요구와 수원갈비의 대중화가 큰 몫을 했다.

김진남에 의하면, 청은농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상당수가 서울 등에서 온 사람들인데, 오전 일찍 집에서 출발하여 농원에 도착하여 산책 등을 하다가 점심 때가 되면 허기를 호소 하곤 했다. 과일만 먹고 떠나기에는 아쉬웠기에, 식사할 거리가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진남의 어머니는 가족과 종업원들이 먹는 된장찌개, 고추장, 농원에서 갓 뜯은 상추, 깻잎, 비듬나물 등을 차려 관광객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곤 했다. 관광객들이 이를 매우 좋아 하며 맛있다고 칭찬하자, 식사 메뉴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한식 백반 요리를 하다가, 닭볶음탕, 백숙 등 닭요리를 주요 메뉴로 취급하였다. 더위에 갈증을 해소해 줄 음료수와 술도 곁들였다.

식당으로 전환하면 수익이 훨씬 증가하기에, 이목동 농원들은 대부분 음식점으로 바뀌었

다. 송정가든도 처음에는 닭 요리를 했는데, 하루에 닭을 150~200마리씩 팔면서 손질과 조리가 힘들어지자 상대적으로 요리가 간단한 돼지갈비로 메뉴를 바꾸었다. 요리 방식은 당시 유행하던 수원갈비 스타일로 하였다. 영동시장 미전거리에서 시작한 '화춘옥' 갈비가 인기를 끌면서, 1980년대는 갈비에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내는 수원갈비가 대중화되는 시기였다. 농원이던 삼풍농원은 1984년 삼풍가든을 개원하였다. 삼풍가든은 한우등심, 양념갈비, 양념갈비정식, 갈비탕 등을 판매했고, 가족 모임 위주의 갈비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원래 농원은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장사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한가한 시기였다. 운영자들은 손님이 오지 않는 가을, 겨울에는 이듬해 영업을 준비하면서, 잠시 휴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든형 식당으로 바뀌면서 포도와 딸기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도 장사를 지속할 수 있었고, 사계절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제적으로는 많이 윤택해졌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농원을 관리하면서, 야외 음식점도 운영하다 보니, 더욱 바쁘고 힘들어졌다.

농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의 테이블 혹은 냇가 평상에서 경치를 즐기며 편하게 식사를 즐겼지만, 운영자와 종업원들은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 식탁까지 뜨거운 음식, 반찬, 물을 일일이 운반해야 했기에 고된 일이었다. 특히 주말에는 단체 손님을 비롯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오갔기에 정신없이 분주한 일과가 펼쳐졌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2시간 이상 청소한 후, 점심 식사 준비를 시작하였다. 송정가든의 경우 점심때는 갈비 50인분, 저녁에는 150인분 정도까지 팔았다. 잡초를 뽑고 나무를 관리하는 이, 조리사,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 전기 등 시설을 관리하는 이 등 많은 직원이 필요하였다. 송정가든은 한때 직원을 47명까지 두고 운영했는데, 과장, 조장, 숯불 담당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기혼 직원들은 저녁 8시 전에 퇴근했지만, 미혼 직원들은 밤 10시까지 근무하였다. 이목동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들을 10여 명씩 고용하여 딸기밭 매는 일을 맡겼다. 주차장 크기가 1,000여 평에 이를 만큼 방문자와 차량이 많았다.

김진남 : 아침, 여름 같은 때는 5시, 뭐 이렇게 일어나지. 청소에는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9시나 돼야 밥을 먹어요. 어떤 때는 9시, 어떤 때는 넘어서도. 점심 되기 전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리 잡으려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손님 받으면 그냥, 그냥 하는 거야. 딴 일과도 없어. (중략) 이제 관리인 아저씨는 우리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커기 풀 뽑고, 또 풀 뽑고, 이렇게 밭 매고. 그럴 때 또 동네 아줌마들을 얻어. 그 사람들이 와서 딸기밭 매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쓰는 관리 아저씨는 농장 들어가서 전기 이상 없냐, 또 이런 데 가서 고치고, 또 일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손님 받는 걸로 하는 거지. 하루일과가 그 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정신없지. (중략) 육체적으로 힘든 건 뭐, 어쨌든 사람 상대니까 그게 힘든 거지. 사람들이 “빨리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중략) 우리 같은 데는 2천 평인데, 주방은 저기인데, 저 냇가에



1970년대 삼풍농원(최창순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삼풍농원을 찾은 행락객들(최창순 제공)



1980년대 삼풍농원 정문(최창순 제공)



1988년 풍차 시설을 갖춘 아리랑농원(수원박물관 제공)



1980년대 삼풍농원을 가꾸고 있는 최중성(최창순 제공)



1988년 노송지대 농원(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985년 가든형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송지대 농원(수원박물관 제공)



1990년 백화농원(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서 부르면 물 하나 따로 가져가지. 또 삼계탕 시키면 뜨거운 거 탕 2개를 들고 가는 거 그게 힘들었어요. 진짜 그 애들 고생 많이 했어요. 나도 했지만, 그거를 저 넷가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

농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바쁜 하루 일과 중에서도 기쁨과 위안을 받은 것은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노을을 보고,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농원 안, 혹은 농원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 거주하였다. 동창과 지인들은 경치 좋은 곳에서 일하는 그들을 보며 늘 부러워하였다. 이웃들은 김진남의 부인에게 “대통령 영부인이 부럽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담금주를 선호하여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와 포도로 술을 만들어 뒀는데, 겨울에 손님이 뜰할 때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모두 마셔버려 바닥을 내기도 했다.

당시 수원 시내에 갈비집이 많이 있었으나, 이목동의 가든 식당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정취를 느낄 수 있기에 차별성이 있었다. 도시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고풍스런 건물, 연못, 우거진 나무를 보며 갈비와 닭 요리를 먹는 이들이 코스는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와 서울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었다. 삼풍가든은 내부에 결혼식장이 있어 야외 결혼식도 많이 진행하였다. 딸기밭, 포도밭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젊은이들

이 몇 년 후 이목동 숲속의 예식장에서 새출발하여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다.

이목동 농원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였다. 그런데 이것이 이목동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일만은 아니었다. 김진남에 의하면 농원이 마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밭과 주택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다. 지금은 아파트와 멋진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 온 신흥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지만,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목동은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한적한 변두리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땀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농원은 생업과 휴식의 공간이었다. 농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모처럼 시간을 내어 야외에서 나들이하는 것이기에, 한껏 기분을 내기도 했고, 때론 일탈을 하기도 했다. 음식을 먹으면서 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일부 남성들은 계곡 옆이니 옷통을 벗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외지인이 몰려와 소음을 발생시키며 노는 것이었다. 이에 농원으로 찾아와 항의를 하는 이도 있었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했다. 청은농원 사람들은 이목동에서 오랫동안 세거하였고, 혈연으로 얽혀 있는 이들이 많기에, 주민들이 차마 겉으로 불평하거나 싫은 내색은 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목동 농원들의 규모가 확장되고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해 내심 우려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김진남은 어떡해서든 농원을 통해 주민과 상생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다른 직업을 찾아 도시로 나간 형들을 대신하여, 군 제대 후 가업을 물려받아 아버지와 함께 청은농장을 운영하였다. 김진남은 1970년대 중후반에 4~5년간 이목동 통장을 지냈다. 농원 업무만으로도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고 고단했지만, 일부러 동네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였다. 동네 노인들이 농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술과 식사를 무료로 대접했고,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듬해에 돈 대신 쌀로 받았다. 농원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전환하며, 밥을 지을 쌀과 식재료 등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왕이면 이목동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였다. 또 농원 일이 바쁠 때는 이목동 주민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여 식사 준비, 딸기 발매기, 잡초 뽑는 일 등을 돕도록 했다. 주민들은 마을에 농원이 있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농산품을 판매하거나, 일자리를 얻었고, 젊은 통장인 김진남의 도움도 꽤 받았기에 점차 감정이 누그러졌다. 송정가든의 유용수는 수익이 커지자 지역사회에 기여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모집하여 매년 봄철에 한 번씩 합동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 이목동 농원의 마지막 풍경

마을 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던 이목동 농원은 1990년대 들어 하나씩 폐업하였다. 농원과 가든이 있던 곳은 일반적으로 평수가 매우 넓었는데, 수원이 개발되면서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가족 단위로 경양식집에 가거나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던 문화는 패스트푸드점, 피자집,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등의 확산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가든형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땅을 팔고 떠나는 것이 수익 면에서 더 유리하였다.

이목동에서 가장 먼저 개원한 청은농원은 농원 자리에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정리되었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988년 2월에 착공하여 1991년 11월에 준공했는데, 경기도 수원시·군포시·안산시·의왕시·화성시·용인시 등 주거 밀집지역인 6개 시를 통과하며, 총연장 23.2km이다. 김인기는 폐업하면서 손수 돌보던 나무들을 모교인 신평초등학교를 비롯해 이목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매향고등학교, 수원대학교 등 인근 학교에 기증하였다. 수십여 종의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길 바라서이다. 특히 이목중학교는 당시 신설 학교였는데 황량했던 학교가 꽃과 나무로 우거지게 되었다.

송정가든은 IMF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직전 폐업하였다. 이 자리에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들어왔다가, 현재는 식당으로 바뀌었다. 유용수는 폐업 후 경기대학교 뒤편에 경매로 나온 한일농원을 인수하고, 상호를 '유일촌'으로 변경하여 1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였다. 해당 지역이 광고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어 다시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다. 현재는 강원도 횡성에서 오디, 블루베리 등을 취급하는 농원을 운영하면서 수원 자택과 횡성을 오가고 있다. 서호천 선경인더스트리(구 선경합섬) 부근에 있던 경남가든도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폐업하였다. 수원의 토지 개발, 신도시 조성이 이목동의 여러 농원에 큰 영향을 준 셈이다.

이목동의 농원들이 대부분 폐업한 가운데, 삼풍농원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삼풍농원 안에는 갈비 맛집이자 야외 결혼식장으로 유명한 삼풍가든, 야외수영장인 삼풍수영장, 다양한 조각품, 동요와 시조 등을 새긴 비석, 연못, 벚꽃, 은행나무, 맥문동, 등나무꽃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때 삼풍수영장은 원천, 광고 수영장과 더불어 수원의 3대 수영장으로 유명하였다. 현재까지 수영장 간판에 '삼풍농원 수영장'이라 표기되어 이곳이 농원을 기반으로 시작된 곳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삼풍수영장은 물놀이를 즐기며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 카톡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삼풍수영장 인파 현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삼풍농원은 출입문을 개방하였기에 누구나 농원 안으로 들어가 자연을 즐기며 넓은 정원을 산책할 수 있다. 전성기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는 않지만, 호젓하고 여유롭게 계절의 변화와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수원에서 사진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도 꼽힌다.

그런데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춘 테마파크인 워터파크가 속속 생기고, 새로운 스타일의 식당이 많이 생기며 과거에 비해 찾는 이는 현저히 줄었다. 이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들어서부터 음식점 위주로 농원을 운영하다 보니 수입에 비해 세금만 해도 몇 억을 내야 하고 유지가 벅찬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시장을 지냈던 김용래,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인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관광호텔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농원 내의 요식업, 예식업 등 서비스업이 성업할 때여서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호텔에 예식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면서 우리 농원의 예식장 사용 수요가 급락하고, 요식업도 IMF 이후부터 관공서에서 외식을 자제하며 침체기를 맞았다. (중략)

이제 삼풍농원은 변화가 필요하다. (중략) 솔직히 땅 자체의 가치로 아파트나 빌라를 지었으면 좋겠

2024년
삼풍농원



ERI

수원시정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이목동 일대 농원(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003년 이목동 일대 도시화와 농원의 폐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다고 하면서 가끔 투자자가 삼풍농원을 욕심내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손수 가꾸고 땀이 스민 나무들에 대한 애착을 쉽게 버릴 수는 없다. 또한 수도권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는 이만한 자연경관을 가진 곳도 없다. (중략) 국도를 건설하고 가꾼 내 인생이 녹아 있는 삼풍농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지은 건물과 시설물들. 그리고 목련, 살구나무, 매화, 등나무꽃들이 만발한 이 꽃동산이 새롭게 가꿔져서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아름다운 명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최종성, 『금잔디동산 수풀은 우거지고』, 2013)

이목동 농원은 오랜 기간 수원 사람들에게 워낙 큰 사랑을 받은 추억의 공간이었기에, 폐업 후 이를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모와 함께 딸기와 포도를 따 먹거나 냇가에 밭을 담그고 닭볶음탕을 먹던 어린 시절, 초여름 딸기밭에서 데이트를 즐기다 결혼까지 이르렀던 청년기, 직장 회식으로 모임을 가진 중장년기, 생일, 잔치 등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한 장소에 대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기억을 갖고 있다. 농원을 운영한 사람들도, 자의가 아닌 택지개발이나 도로공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기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허드레 땅을 개간하여 잡초를 매고,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가족이 푹푹 뭉쳐 고생하여 유명한 농원과 가든으로 일구었다는 데 자부심도 크다. 그래서 농원을 기억하는 이들, 예전에 농원을 방문했던 손님들을 만나면 크게 반가워하고, 함께 옛날을 회상한다. 유용수는 강원도 횡성에서 농원을 운영하면서 간혹 수원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러면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송정농원에 대한 추억을 공유한다. 한때 농원에 400~500평의 잔디밭을 만들어 낮에는 예식을 하고, 저녁에는 갈비 식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곳에서 결혼하거나 하객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김진남 : 고속도로 때문에 폐업하고 1년간은 계속 손님들이 전화했는데, 그만됐다고 하니까 “그 좋은 데를 왜 그만뒀냐? 다른 데 옮겨서라도 계속하라!”며 아쉬워했어요. (중략) 우리는 묘목 하나도 우리가 심어서 다 했던 거고, 오 형제하고, 아버지, 육 부자가 리어카 끌고, 자갈 냇갈에 물 흐를 때 모래 같은 거 채취해 가지고, 그걸 매꾸고 그랬어요.

유용수 : 결혼식을 이제 많이 치르는 때가 하루에 세 팀까지는 받아 봤어요. ... 여기 횡성에 제가 와 있는 데요. 주변에 수원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옛날 얘기하다가, “우리 노송시대 송정농원 아시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제가 일했습니다.” 했더니, 어제 온 손님들도, 수원분들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중략)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거기서 결혼했다고!

이목동은 도시인들에게는 꿈과 추억, 휴식의 공간이었고, 마을 주민들끼리는 상생을 도모하던 터전이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익숙했던 경관도, 정들었던 장소도 사라지고, 주민들의 구성도 달라졌지만, 나들이와 데이트, 외식을 즐기며 행복했던 기억은, 그 시절 농원의 포도와 딸기처럼 싱싱하게 생명력을 이어 가고 있다.

<표 2> 이목동 일대 농원의 변천

연번	농원명(1979년)	소재지	2024년 토지 이용 현황
1	청은농원	이목동 77번지 일대	영동고속도로 편입
2	이목농원	이목동 165번지 일대	임야
3	안성농원	이목동 170번지 일대	전
4	도아포도원	파장동 23번지 일대	북부버스타고지, 도로 편입
5	흑장원	파장동 95-2번지 일대	공장
6	평화농원	파장동 110번지 일대	도로 편입
7	청산농원	파장동 119번지 일대	도로 편입
8	차연농원	파장동 산147번지 일대	도로 편입
9	노송농원	이목동 626번지 일대	영동고속도로 편입
10	삼풍농원	이목동 715번지 일대	삼풍농원
11	화성농원	이목동 661번지 일대	삼풍농원
12	부국농원	이목동 916번지 일대	수원장안힐스테이트
13	중앙농원	정자동 581번지 일대	정자동성당
14	태극농원	정자동 578번지 일대	천주교 수원교구청, 주차장
15	대지농원	이목동 858번지 일대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세우관
16	송정농원	이목동 864번지 일대	제일단지자동차매매상사
17	종국농원	이목동 873번지 일대	주차장
18	세일농원	이목동 562번지 일대	주택, 아파트



대한식품회사에서 해태유업으로, 그리고 다시 동원F&B로

SRI

수원시정안위원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 이목동에 들어선 우유 회사, 대한식품회사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 불리던 이목동은 1963년에 화성군 일왕면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의왕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타 지역과 경계를 이룬다는 것은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목동은 '이목리'라는 지명이 더 입에 붙을 정도로 수원시에서도 농촌 이미지가 강한 곳이었다. 1967년 수원시를 방문한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을 비롯한 방문단이 수원시장의 안내로 수원 시내의 고적들을 관람하고 이목동의 농가 경영 형태를 시찰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다. 이때까지도 이목동은 농촌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68년 봄부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장이 지어지더니 연말에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분유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대한식품회사(주) 수원공장이었다. 대한식품회사는 해방 직후 박자용이 설립한 개인 상사(商社)인 대한식품에서 출발하였다. 미도파 백화점의 전신인 미우만백화점과 무역회사 미우만통상을 운영하고 있던 정진욱은 미우만백화점을 처분하고 자본



대한식품회사(주) 수원공장 가동 개시 및 비만유유 시판 (『매일경제』 1969년 8월 14일)

대한식품회사에서 동원F&B로



SRI

수원시장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금 500만 원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박자용의 대한식품과 미우만통상을 합병하면서 1963년 12월 31일 대한식품회사(주)를 설립하였다. 미우만통상은 네덜란드 '리젠프' 유업사의 한국 대리점으로서 1957년부터 리젠프의 '비만'우유를 완제품으로 들여왔는데, 비만우유는 1957~1958년 우리나라 우유 시장의 60%를 점령했을 정도였다고 한다.²

새로 태어난 대한식품회사는 완제품의 수입·판매를 지양하고 반제품의 가공·판매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4년 초 서울 성동구 모진동에 연간 1,000톤의 분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지었다. 대한식품은 '대한'이라는 상표로 콜라와 사이다를 생산하기도 했으나, 대한식품회사로 합병되고 모진동에 반제품 처리 공장을 세운 이후에는 유제품 생산에 주력하였다. 우유를 수입하여 분유를 만드는 방식으로 반제품 생산을 시작했던 대한식품회사는 2년 만에 100% 완제품 생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완전 가공시설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이때 선정된 지역이 수원시 이목동이였다.

대한식품회사는 이목동 380번지 일대 3,000평을 평당 5,000원에 매입하고 공장 건립에 착수하였다. 1968년 2월에 설립 허가를 받고 4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할 정도로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공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1,600평 규모의 공장에 연간 분유 1,314톤, 연유 2,781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설비에 필요한 기계는 대일청구권 자금 13만 달러로 일본에서 들여왔다. 공장을 짓는 데 약 2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위생시설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 업종 특성상 건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설비의 대부분을 위생시설 설치에 투자했다는 것이다.³ 자동 생산설비를 갖춘 수원공장 설립 이후부터 기술제휴를 통해 100% 국내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식품회사는 '낙농진흥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우유업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야심 차게 출발한 대한식품회사는 출발과 동시에 멈추고 말았다. 가공원료인 원유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준공한 지 7개월이 지난 1969년 8월 15일야야 비로소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마저도 원유를 공급받을 때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원유처리 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남양분유), 대한연유, 한국비락 등이 있었는데, 이들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하루 8시간 가동 기준으로 2만 6,000톤 정도였다. 가동 시설 규모에 비해 연간 3,500톤의 원유가 부족한 실정이었었는데,⁴ 여기에 대한식품회사가 합류하였으니 국내의 원유 부족 상황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소비자의 분유에 대한 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국내산보다는 외국산 분유가 시장에서 더 많이 유통되었다. 미우만통상은 네덜란드 리젠프사, 한국비락



대한식품회사의 변화상을 소개한 신문기사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주)는 미국 골든스테이트사, 신성산업은 일본 명치분유, 영본상사는 일본 모리나가(森永)유업의 분유를 수입하거나 원료를 들여와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수준이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한국낙농유업 등의 국내 분유 생산업체가 있었으나, 범람하는 외제 분유와 경쟁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1963년 정부의 낙농진흥5개년계획에 의거, 낙농가공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뒤이어 외제 분유 수입금지, 원료 수입금지 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나옴에 따라 분유 수입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서울우유조합, 남양분유 등 국내 분유 업체는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⁵ 1960년대 말에는 대한식품회사가 우유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 원유 수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대한식품회사는 후발주자였던 만큼 원유 수급에 불리함이 있었다. 당국에서는 경쟁자인 서울우유조합이 대한식품회사에게 원유를 분양해 주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서울우유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식품회사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우유조합은 1937년 창립된 경성우유협동조합의 후신으로 볼 수 있는데, 196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개편했다가 이해 3월 28일자로 농협중앙회에 가입하여 산하 특수조합이 되었다. 우유 관련 업체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서울우유조합과 대한식품회사는 원유의 공급량과 공급가격에서 이견을 보였다. 대한식품회사의 주장은, 서울우유조합이 조합원인 낙농가를 통해 원유를 전량 집유하고 있으므로 대한식품회사도 필요한 양의 원유 공급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가받은 처리시설 규모가 연간 7,884톤이므로 하루 8시간 조업 기준 1일 평균 20톤의 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급가격에서도 서울우유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매하는 원유 1kg당 50원을 제시하였다. 이 가격에는 이미 운반비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우유조합이 손해 보

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우유조합은 대한식품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향후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원유처리량이 늘어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원유를 나눠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공급가격도 원유 보관에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 등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원유 1kg당 54원 80전을 주장하였다.⁶

당시 우리나라의 원유처리량은 일당 3,000kg, 약 300두(우리나라 젖소 총수 1만3,000두) 분에 불과하였다.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식품회사는 대구와 부산에도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이미 17만 달러의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정부가 10년 내에 젖소를 10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으나,⁷ 원유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1972년 7월부터 미국의 구호분유 원조가 종식됨에 따라 우리나라 분유업체들은 시설 확장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후발주자였던 대한식품회사도 연간 7,800톤을 생산하는 수원공장의 생산시설을 배가(倍加)하는 한편 미국 기업과 기술제휴를 추진하였다.⁸ 1971년 4월 미국 비어트리스사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전환하여 8월에 상호를 메도골드대한식품(주)로 변경하였고, 1972년 9월에는 상호를 다시 메도골드코리아(주)로 변경하였다.

수원시장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972년 메도골드대한식품주식회사(수원박물관 제공)

2. 해태제과의 인수와 해태유업의 성장

1963년에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대한식품회사는 10년 만인 1973년에 자산평가액 7억 6,287만 3,000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1970년대 이르러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1973년 8월 31일 6억 2,800만 원에 해태제과에 인수되었고, 1973년 10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해제되었다. 그리고 1974년 1월 해태유업(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⁹

해태제과는 1973년 4개의 식품회사를 설립하고 종합식품회사의 면모를 갖추었다. 미국의 음료 메이커인 '선키스트'와 기술제휴로 해태식품공업을 발족하여 천연 오렌지주스 생산 계획을 세웠고, 농개공으로부터 한국산토리를 인수하고 해태주조를 발족하여 양주를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감귤냉장을 인수하여 해태감귤냉장을 세웠고, 메도골드코리아를 인수하여 해태유업을 발족시킨 것이다. 이로써 해태는 종합식품회사 체제를 일단락시켰다.

해태유업은 본사와 공장은 수원시 이목동에 두고 서울 양평동5가 86번지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당시 해태유업의 사업종목은 ① 각종 낙농제품 및 식품의 제조, 가공과 국내 판매, 군납 및 수출 ② 전항(前項)의 생산품을 위한 식품 원료의 생산, 판매 ③ 축산업 및 각종 축산물의 처리, 가공 ④ 각종 사료의 생산, 가공, 판매 ⑤ 수출입업 ⑥ 앞의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소개되었다.¹⁰

해태유업은 메도골드코리아 인수 초기에는 메도골드와 기술제휴로 분유를 생산하였으나, 주력 제품을 우유로 바꾸고 점차 생산품목을 늘려 나갔다. 1975년에는 커피나 홍차에 타서 먹는 인스턴트 크림파우더인 '커피스'와 버터를 생산하였다. '커피스'는 100% 해태유업의 기술로 동서식품에서 1974년 12월에 출시한 '프리마'와 경쟁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버터는 서울우유에서 생산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으나 당시는 버터보다 마가린의 수요가 더 많았다. 해태유업은 버터를 출시하면서, 생우유를 원료로 하는 '해태메도골드버터'가 필수 지방분을 골고루 함유한 천연제품으로서 영양과 건강을 고려할 때 마가린보다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버터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해태유업은 선두주자였던 서울우유를 위협할 정도로 시장을 확보하였고, 서울우유·비락우유와 함께 국내 3대 버터 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해태모닝버터'는 시판된 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다.

해태유업은 원유의 가공·처리 과정에서 영양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딸기우유, 초콜렛우유, 바나나우유 등이 개발되었고 제품의 포장도 다양화하였다. 1977년에는 수원공장을 증축하고 유산균 발효유 생산시설을 확장하여 1일 30만 본이던 생산량을 1일 100만 본으로 증산하였



1974년 해태유업(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 | 수원시 SUWON RESEARCH & DEVELOPMENT | 수원학 연구센터

다.¹¹ 해태유업의 유제품은 이목동에 있는 수원공장에서 생산하였지만, 영등포구 양평동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총괄하게 하였다. 전국에 해태유업 유제품센터를 설치하고 통해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각 유제품센터에서 가정과 소매점, 제과점, 해태의 집에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특히 매일 아침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는 사원을 고용하였다.¹²

서울우유와 남양분유 등 기존 업체에 비해 늦게 우유업계에 뛰어들었기에, 해태유업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시 신문광고를 보면, 해태우유의 우수성과 제품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영양가 높은 우유를 매일 마시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해 가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태우유가 나왔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오늘부터 온 가족이 해태우유를 마시세요. 해태우유는 미국 우유업계의 명문 메도골드와의 기술제휴로 생산되는 위생적이며 영양가 높은 고급 우유입니다.



1977년 해태유업 전경(수원박물관 제공)



1979년 해태유업 공장 시설(수원박물관 제공)



1987년 해태유업 수원공장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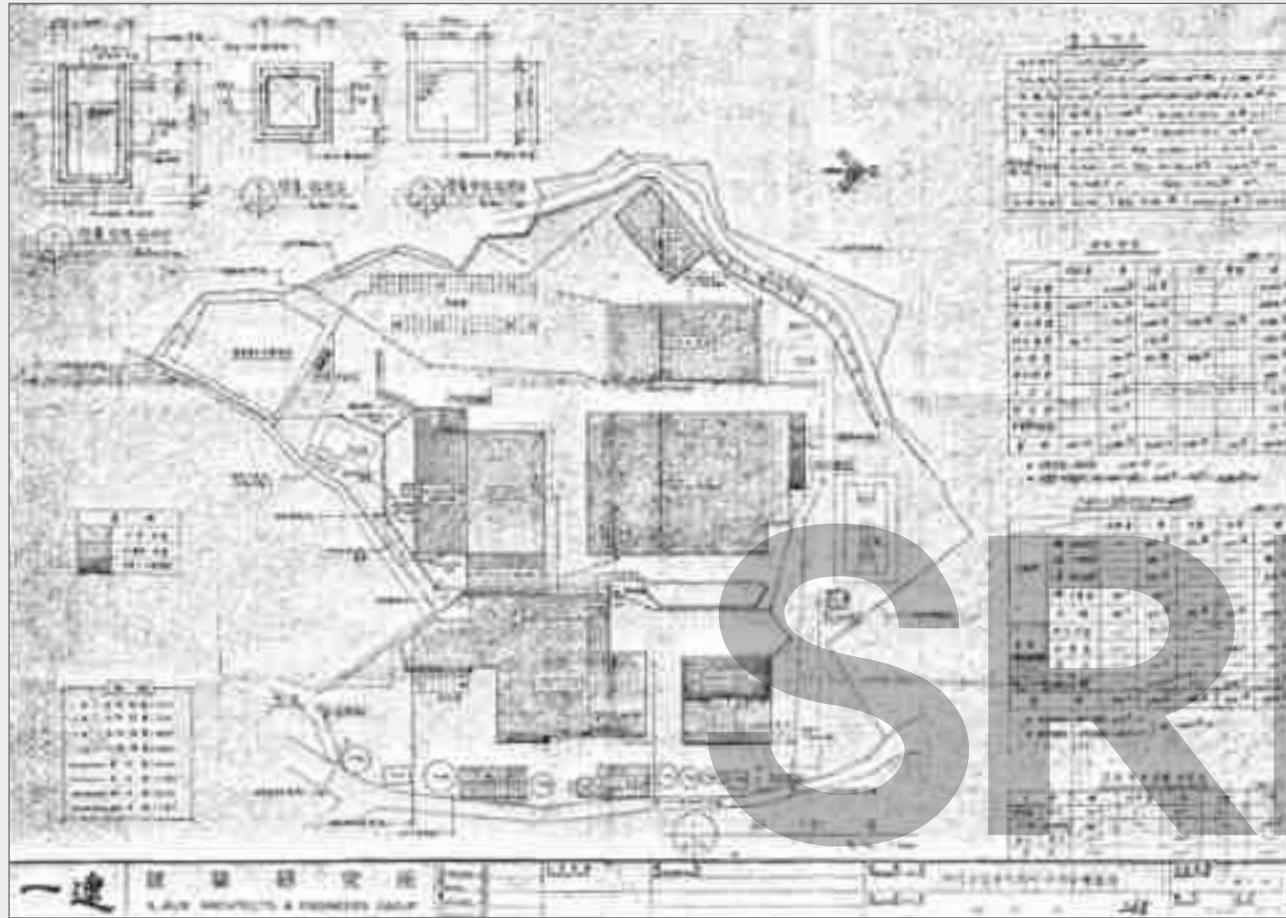


1987년 해태유업 수원공장 설계도면(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표 1> 1987년 해태유업 기존 면적

구분	지하층					(단위 : m ²)	
		1층	2층	3층	옥탑	계	
제1공장		3,268.79	1,201.59			4,470.38	
제2공장	363.64	2,742.55	768.69			3,874.88	
제3공장		1,147.47	1,044.99	774.98	125.95	3,093.39	
제4공장	78.00	1,300.00	278.25			1,656.25	
사무동		993.59	993.58	358.78		2,345.95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옥탑	계
운수과동		480.00				480.00
수위실		9.92				9.92
정수장		52.50				52.50
위험물저장창고		21.00				21.00
합계	441.64	10,015.82	4,287.1	1,133.76	125.95	16,004.27



1988년 해태유업 증축 설계도면(수원시청 제공)



1990년 증축 후 해태유업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수원시정안고운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태의 해태우유 광고(『경향신문』 1974년 1월 10일)

해태우유에는 목장우유, 초코렐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가 있으며 버터와 전지분유도 생산됩니다. 해태우유로 우유 마시는 생활을 시작하세요. 매일 택배로 배달해 드립니다.〈『오늘부터 해태우유로 시작하세요』, 『경향신문』 1974년 1월 11일〉

한편 해태제과는 메도골드코리아를 인수하고 해태유업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해태’를 상표등록하고 해태제과와 해태유업 간에 공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해태제과의 요구가

있을 시 해태유업은 즉시 상표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1990년에 해태제과와 해태유업은 상표 사용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945년 해태제과를 설립한 민후식·박병규·신덕발은 공동경영을 하다가 1977년 박병규가 사망하자, 민후식과 신덕발도 2세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계열분리를 단행하였다. 이때 해태유업은 민후식의 아들 민병현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분리 당시 해태제과는 사이다와 주스, 해태유업은 발효요크림과 유산균요구르트로 각자의 영역을 보장하기로 하며 별도의 법인으로 재출발하였다.¹³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양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1970년대부터 이미 해태유업에서 생산하는 유산균음료 ‘쿨피스’와 해태음료의 ‘조아’가 겹쳤고, 해태가 호남우유를 설립하며 우유를 주력으로 하는 해태유업과 일부 지역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해태유업이 피자와 우유탄산음료를 생산하면서 해태에 도전장을 던졌다. 해태는 해태유통이 직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해태유업 제품을 제외하고 서울우유와 매일우유 등 타사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해태유업이 소유하고 있던 해태제과 주식을 전부 매각함에 따라 해태제과 측에서 해태유업에 상표공유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¹⁴

8년간 계속된 해태제과와 해태유업의 상표 분쟁은 1992년 6월에 법정화해로 최종 타결되었다. 해태유업은 2000년 6월까지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에만 ‘해태’ 상표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해태제과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¹⁵ 그러나 해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찾아온 유동성 자금난의 여파로 2001년 완전 해체되었고, 해태와 무관했음에도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해태유업은 역설적이게도 소송 끝에 확보한 ‘해태’라는 상표로 인해 해태그룹의 계열사로 인식되어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해태유업 요구르트 광고(『경향신문』 1976년 7월 12일)



해태 이유식 광고(『매일경제』 1977년 6월 2일)



해태유업 제품 광고(『조선일보』 1990년 3월 27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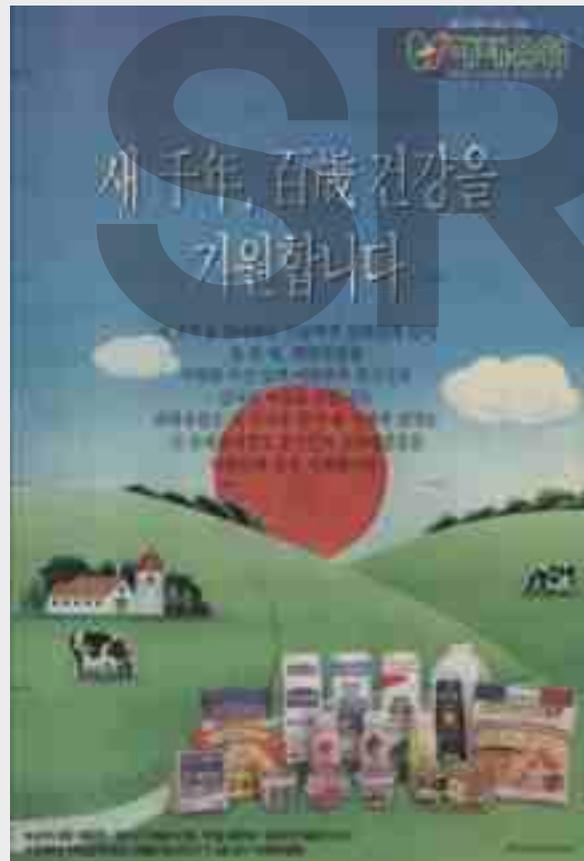


1

2

3

- 1 해태유업 요쿠르트 광고(『조선일보』 1990년 4월 27일)
- 2 해태유업 광고(『조선일보』 1981년 10월 21일)
- 3 해태유업 광고(『동아일보』 1999년 12월 30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태제과와 해태유업의 상표권 분쟁(『경향신문』 1990년 12월 22일)



해태그룹과 무관하며 자금사정이 양호한 상태임을 알리는 기사 (좌 : 『매일경제』 1997년 5월 22일) (우 : 『매일경제』 1997년 5월 23일)

3. 해태유업의 생산조직과 생산과정

1975년 당시 해태유업은 총무부, 경리부, 관리부, 생산부, 영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산부는 검사과·생산과·공무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평에 있던 집유소도 생산부 소속이었다. 사무실과 생산공장은 수원 본사에 있었지만, 영업부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두었다. 생산부는 다시 제품별로 세분하여 팀을 나누었다. 이정재가 재직하던 1980~1990년대 생산1과는 시유(市乳)인 해태우유, 생산2과는 발효유·가공유, 생산3과는 멸균유, 생산4과는 요러브, 생산5과는 분유, 생산6과는 치즈·버터를 생산하였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해태우유였다.

1982년 해태유업은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스웨덴에서 기계를 들여와 멸균유 생산을 시작하였다. 입사 이후 줄곧 생산1과에서 일을 하던 이정재는 멸균유를 생산하는 생산3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생산3과에 배정된 직원들은 멸균유 생산공정과 기계설비 등에 대해 2주 정도 특별교육을 받았다.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업계의 특성상 신입사원 교육이나 현장 관리는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멸균유 공장은 말 그대로 멸균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갈 때 가운 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에어샤워를 거쳐 무균 상태로 들어가야 했다. 시유는 보통 70~80℃ 정도의 살균을 하는데, 멸균유는 142℃의 파이프라인을 지나면서 멸균되는 방식이어서 작업장 내부는 열기로 인해 덥고 습한 환경이었다.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쓴 상태에서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다 보면 땀이 흐르고 숨을 쉬기가 조금 불편했다고 한다.

유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몸에 우유 냄새가 배게 되는 모양이었다. 통근버스는 해태유업 직원들만 타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일반 버스를 타면 주위 사람들이 냄새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정재 : 일반 버스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분이 “우유 냄새가 난다.” 갈아입는 데도, 씻고 다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도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퇴근을 하고 산양에 불실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그래. “어? 젓 냄새가 나네?”

해태유업은 통근버스를 운행했다고 한다. 해태유업-수원역-남문을 왕복 운행하는 노선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운행구간이면 셔틀버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출퇴근 시에만 운행하는 통근버스였다. 남문은 수원을 지나는 거의 모든 버스가 정차하



1970년대 해태유업의 생산시설(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립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는 곳이었고, 수원역은 기차와 전철을 탈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교통량이 많은 곳만 운행하는 셈이었다. 이목동에 거주하는 유영홍과 이정재는 퇴근 후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통근 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이라 하는데, 유영홍은 해태유업 노동조합이 1976년 이후에 결성된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해태노동조합 산하에 제과·음료·유업이 각각 지부로 있다가 지부의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각 지부가 단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한 것으로 보인다. 해태유업 노동조합은 1980년대 들어와서 단독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노동조합 설립을 두고, 노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생기면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거의 전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한다.

유영홍의 구술에 의하면, 대한식품회사에서 메도골드코리아로 넘어갈 때, 다시 해태로 넘어갈 때 새로운 기업주는 직원의 구조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주는 회사조직을 재편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였을 수 있겠으나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직원은 반감지 않은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태유업은 1989년에 해태그룹에서 분리하였다. 민후식 공동창업주 장남 민병현의 몫으로, 1989년에 지분을 매각하여 그룹에서 분리하였으나 회사명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당시 계열을 분리한 해태관광은 사명을 변경하였으나 '해태'라는 이름을 유지하였던 해태유업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태그룹이 위기를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해태그룹 계열사로 인식되어 1998년 부도 위기에 처하는 불운을 겪었다. 희생절차를 밟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2006년 동원그룹에 인수되었다.

유영홍 : 해태유업이 잘 되다가 90년도서부터 회사의 경영진 난이지. 형제지간의 난. 전부 뿔뿔이 헤어지니까. 이 동생이 형도 따로 놓고. 형은 동생들을 빨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 있는 형은 또 이 사람한테 뜯기고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뜯기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장사 안 되니까 부도도 나가지 전에 있었고. 월급은 그냥 다달이 안 나오고 몇 달씩 그냥 이렇게. 회사가 그런 날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월급을 기다리는데 월급이 늦어지는 거야. 오늘 나와야 되는데, 내일 나온다, 모레 나온다, 며칠 있다 나온다. 이것이 려구한 날 있다시피 하나까 직원들이 항상 스트레스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나빠지면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우유를 주어 팔아서 쓰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직원들 중에는 거래처를 두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럴 경우, 우유를 구매하는 측에서는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대리점과 회사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노동자도 월급이 일정 부분 깎이게 되는 셈이므로 회사로서도 직원으로서도 손해 보는 셈이었다.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먹는 것은 특별히 제재하지 않았으나,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통제하였다고 한다. 대신에 구내매점에서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매점에서 구매하였다고 한다.

이정재 : 흑시라도 먹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반출은 일단 철저히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차체 내에서 먹는 거는 뭐 먹기 싫을 정도로.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 당시에 우유 못 먹던 사람들이 커든. 우유 먹고 막 배탈 나고. 장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그랬던 그 경험은 있습니다. 반출은 그때 절대 못하고 그 대신 매점에서 직원들한테 저렴한 판매를 했어요. 전 제품을 다.



해태우유 생산라인



해태우유 슬라이스치즈 생산라인

4. 해태우업의 노동자 구성

해태우업이 대한식품회사를 인수할 당시 직원 수는 100명 정도였다. 그런데 1975년 6월 30일 현재 사원 118명, 공원 109명으로 총 227명이 재직하고 있다는 기록을 보면,¹⁶ 2년 만에 직원 수가 2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해태우업은 인수 초기부터 생산 품목을 늘리면서 설비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부의 직원 채용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해태우업 노동자들은 출신지가 다양하였다. 가깝게는 수원 출신부터 멀리 영남과 호남에서 올라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해태우업만의 특징이 아닌, '이촌향도'라는 당시의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와 울산, 포항 등의 공업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농촌의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평택 안중면이 고향인 이정재는 1979년 해태우업 생산직 공채로 입사하였다. 고향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이정재는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했다. 마침 수원에 살고 있던 누나와 매형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고 한다. 매형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정재에게 북수원에 위치한 두 곳의 회사를 소개했다고 한다. 정자동의 선경과 이목동의 해태우업이었다. 두 곳에 모두 지원하여 두 곳에 모두 합격한 이정재는 해태우업을 선택하였다. 두 회사를 비교해 보니, 급여나 직원복지 등에서 해태우업이 선경보다 더 좋았다고 한다.

이정재는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으로 이사하였다. 집은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목동에서 찾았는데, 마침 방 두 개짜리 독채 전세 매물이 있었다고 한다. 개량 한옥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정재의 조건에 맞는 집이었다. 당시 전세가가 60만~70만 원이었다고 하며,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다고 한다.

이목동 토박이 유영홍은 해태우업의 전신인 대한식품회사에 입사하였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집 근처에 공장이 들어온다면서 공사를 시작하기에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한다. 대한식품회사가 서울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목동에 짓기 시작한 공장이었다. 농사가 주업이던 이목동에 공사장이 생기니 동네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이긴 하나 좋은 일자리가 생긴 셈이었다. 유영홍은 자신이 공장 건설에 참여하였던 대한식품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다. 입사 3년 3개월 만에 반장이 되었는데, 메도골드코리아로 바뀔 때도 해태우업으로 인수합병될 때도 정년퇴직할 때도 여전히 반장이었다. 생산부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이 반장이었다고 한다. 유영홍은 해태우업이 동원그룹으로 인수합병되기

수원시정인문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970년대 해태유업 노동자(수원박물관 제공)



1970년대 해태유업 노동자(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전인 2003년에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유영홍이 대한식품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소위 '직주 근접(職住近接)'이었다. 집과 회사가 1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점심시간에도 구내식당 밥이 먹기 싫으면 집에 가서 먹고 올 정도였다. 회사 선택의 조건이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해고되지 않는 한 다닌다는 생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신지가 다양하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는 향우회가 조직되었다.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온 직원들은 소속 시군별 인원이 적어서 호남, 충남, 영남처럼 도별로 모임을 조직했다고 한다. 경기도 출신들은 삼남 지방에 비하면 인원이 많아서 시군별로 모임을 결성하였다고 하며, 수원 출신들도 별도의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정재는 평택 출신 직원들의 친목회인 '평우회(平友會)'에 가입하였다. 평우회를 비롯한 지역 향우회는 대부분 매월 한 번씩 모임을 했다고 한다.

직장 내의 향우회는 타지에서 동향 사람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했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도 유용하였다. 비정기적으로 생산직 사원을 충원할 때는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직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정재 : 연결 연결해서 다들 입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고는 거의 안 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당시에는 인사과에서 모든 것을 반영해서 그 인원 문제는 이제 노조, 노조에다 통보하면 노조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인원 몇 명 차출하고 추가로 뽑고.

신제품이 출시되고 생산량이 늘어도 생산공정이 점차 자동화되면서, 생산부의 직원 수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생산부는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달랐지만 전체적인 성비는 남녀가 비슷했다고 한다. 제품을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이는 포장 라인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담당했고, 원료를 기계에 투입하거나 하는 전



평택 출신 직원 친목회 평우회

처리실은 근력이 필요하므로 남성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했고, 기계를 조작하는 공무부도 남성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는 20대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이정재는 1996년에 퇴직한 이후 함께 명예퇴직한 32명의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교류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고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도 줄었다. 이제는

특별한 모임을 계획하기보다 서로 안부나 묻는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5. 해태유업 노동자들의 여가 생활

해태유업에는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사내 동아리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동아리라는 표현 대신 동호회라고 지칭한 듯하다 산악회와 낚시회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동아리였던 것 같다. 회사에서는 산악회에서 산행을 하거나 낚시회에서 출조를 할 때면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는 정도였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했다고 한다. 낚시회에 가입하면 낚시 장비를 하나씩 마련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한다. 테니스회도 있었는데, 회사에 테니스장 시설이 없었으므로 회사 근처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임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호회가 직원들의 기호에 따른 선택근무시간 외의 여가생활은 해태유업은 회사 경비로 지출하는 부서 회식이 있었다. 가끔 하는 부서 회식은 주로 삼겹살집에서 하는 행사였고 개인적으로 여럿이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해태유업 직원들은 주로 파장동의 식당이나 술집을 이용했다고 한다. 회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했고, 이왕이면 이웃 동네 물건 사주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뜻이기도 했다고 한다. 주머니 사정이 다들 넉넉지 않은 터라 개별적인 모임은 대부분 조출하게 했던 것 같다.

파장동은 수원 북쪽에서 유흥가로 이름난 곳이었다. 파장동이 유흥업으로 소문나게 된 데에는 1977년 파장동에 개원한 내무부 종합연수원이 역할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파



해태유업 낚시동호회



해태유업 축구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장동 산8번지 경수대로 주변에 들어선 내무부 종합연수원은 내무부 지방공무원연수원, 경기도 지방공무원연수원, 임업연수원, 소방학교 등 4개의 연수원을 한 캠퍼스에 모은 것으로 한 번에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연수받는 동안 기숙사에서 지내는 공무원들이 일과를 마무리하고 인근의 식당이나 술집을 찾는 일이 많았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파장동과 인접한 정자동의 SK케미칼 공장의 역할도 컸다. 3교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고, 퇴근하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파장동 유흥가를 찾았고 간판의 불은 새벽 5시까지 꺼질 줄 몰랐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장이 울산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489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파장동 일대를 찾는 발걸음도 점차 줄어들었다.¹⁷

이정재 : 유흥업이 많다는 건 세무대학이 생기고 나서. 그때 하숙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방에서 공무원 들 다 여기 연수받으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파장동의 하숙촌이 엄청 잘 됐어. 그들 때문에. 그리고 술집도 그때 부지기수로 막 늘어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태유업이 자리 잡고 있는 이목동은 당시에 점포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급할 때 이용하는 소위 구멍가게가 몇 개 있는 정도였고, 파장동에 가야 상가들이 있었다고 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6. 해태유업 노동자, 이목동 통장이 되다

이목동에는 선경과 해태유업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노동자들은 버스비도 아끼기 위해 회사 근처에 방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목동 주민들은 창고나 축사 등의 유휴공간을 부엌 딸린 방으로 개조하여 이들에게 임대하였다. 조용한 시골에 공장이 들어와서 좋은 건 매달 방세로 들어오는 현금이었을 것이다.

이정재 : 해태, 선경 거의 그렇습니다. 하셔튼 그래서 여기가 월세방이 잘 나갔고. 회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집은 다 그냥 이렇게 방 부엌, 방 부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집에도 몇 개씩 이렇게 임대를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영홍 :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세를 얻어 살고 했으니까, 셋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늘어나니까 좋았겠지. 다른 건 뭐.

부엌 딸린 방 한 칸에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내 집을 마련하여 나가는 경우가 많았



해태유업 기우회 회장 이정재(이정재 제공)



해태유업 노동자 이정재(이정재 제공)

수원시... 수원학...
SUWON RESEARCH INSTITUTE



이목동 통장 이정재(김진홍 제공)

지만, 이목동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었다. 입사 초기부터 가족과 함께 이목동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한 이정재는 이목동이 좋아 퇴사 후에도 이목동 주민으로 살고 있다.

이정재 : 한 /년 반 정도 살았어요. /년 반 살고 그리고 마침 내가 이제 가을에 일과 끝나고 자전거 타고 그때 여기를 한번 오르다 보니까 그때 해가 낫았었는데 이 동네가 그냥 그 감이 엄청. 감의 고장이거든. 근데 그 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저런 동네에서 한번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수시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기로 올라왔던 거죠. 자전거 타고 올라와서 돌다 보니까 마침 내가 지금 사는 집에 그 러에 그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다 진짜 쓰러져가는. 근데 그 집이 나왔다 그러길래 그 커를 전세 빼고 누님한테 돈 좀 빌려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대충 그냥 수리만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살았죠.

허름한 초가집이라서 싸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서 바로 옆에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한다. ‘브로크’로 벽을 쌓고 ‘스레트’로 지붕을 얹어서 집을 지었는데, 동네의 다른 집들처럼 방과 부엌을 더 들어서 임대하기도 했다. 이정재는 1996년에 퇴직하고 나서 집을 다시 지었고 현재까지 그 집에 살고 있다.

이목동 윗배나무골은 강릉 유씨와 경주 김씨가 오랫동안 세거한 마을로, 다른 지역 출신에 배타적인 편이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탓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어려운 마을이었는데, 이정재는 이목동에 들어온 지 5년이 채 안 되었는데도 토박이 모임인 선봉회 가입을 권유 받았다고 한다. 이목동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른 동네로 떠나는 대부분의 외지인과 달리 이정재는 이주 초기부터 이목동에 내 집을 마련하였는데, 이정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뜨내기 아닌 ‘우리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기로 한 것 같다.

이정재 : 집 회사 이것만 내가 전념을 했기 때문에 동네 분들과 이렇게 어울리지는 못했어요. 어울리지 못했는데, 여기 토박이들이 하는 그 모임에 한번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고심 끝에 어차피 내가 이 동네에서 살 바에는 그네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수락을 해서 그분들과 모임을 계속해 오다가 코로나 전에 이제 나이들이 다 드셔 가지고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다 해체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정재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여 년 전부터 통장을 맡고 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외지인을 동네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 마음들이 고맙고, 수십 년 동안 이웃으로 살며 받은 정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통장을 수락했다고 한다. 통장으로 일



이목동에 정착한 이정재

SR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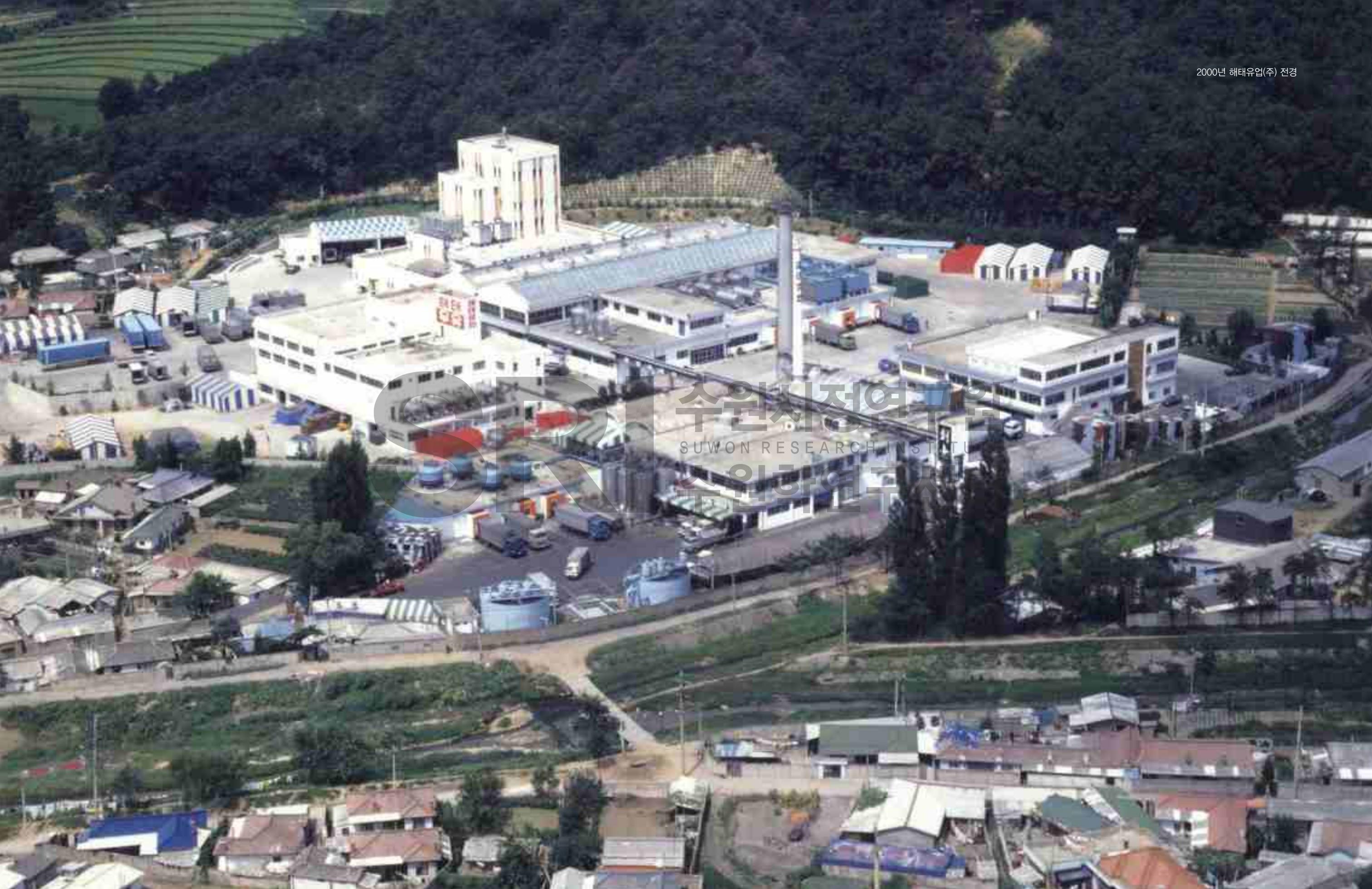
하는 10년 동안 이정재는 마을에 도시가스와 상수도를 들였고, 마을버스도 운행하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해태유업의 ‘평우회’ 소속이었던 이정재는 지금 이목동 ‘통장’으로 살고 있다.

7. 동원F&B로 거듭나다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태유업은 2000년 롯데햄-롯데우유에 영남공장을 매각하였고 2004년 6월에는 상장이 폐지되었다. 그 후 2006년 9월 동원그룹은 해태유업을 인수한 데 이어 2007년 5월 동원데어리푸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동원데어리푸드는 2014년 (주)동원F&B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해태유업과 투자계약을 체결, 사실상 인수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수금액은 400억 원선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덴마크우유로 유명한 디엠푸드를 인수한 데 이어 해태유업까지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유가공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며 “덴마크우유와 구매와 물류 등을 통합해 공동 마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환경연구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케팅을 펼치고 동원F&B의 유통망을 활용, 유가공사업을 그룹의 핵심사업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태유업과 덴마크우유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540억 원, 447억 원이고 올해 목표는 840억 원,
 800억 원이다.〈동원, 해태유업 인수, 『한국일보』 2006년 8월 6일〉

한편 지역에 득이 되는 영향과 반대로 해를 주기도 했다. 대한식품회사가 들어온 1968년 당시만 해도 이목동은 조용한 농촌이었고 공장이 자리 잡은 곳은 민가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우유를 생산하는 업체였기에 악취가 발생하랴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문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수원시의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폐수처리장 소음과 악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서면서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까지 제기되었다.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점검했지만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며 노후화된 폐수처리장은 대책 없이 미움을 받으며 이전 요구까지 빚발쳤다.

수원시는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나섰으나 암모니아 농도 허용치 등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2019년 모니터링 장비 설치 등 악취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자체 기준을 마련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악취관리지역을 벗어나도 시 차원에서 악취 관리와 저감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해당 기업과 주변 지역 주민을 모아 공청회도 열었다.

수원시의 전방위적인 조치에 해당 기업도 움직였다. 동원F&B는 2021년 초 67억 원을 투자해 폐수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고, 약속대로 그해 5월 공사를 시작해 2023년 3월 공사를 마쳤다. 하루 2,400톤의 폐수처리 과정에 첨단기법을 도입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한 데 이어 악취 발생 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공간에는 나무 등을 심어 도시 경관을 개선하였다.¹⁸

註

1. 「미 대사관 직원 등 수원시 교적 관광, 『매일경제』 1967년 10월 27일.
2. 「대한식품, 우유처리기공공장,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3. 「대한식품, 우유처리기공공장,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4. 「우유싸움, 질대량 부족이 불씨, 『경향신문』 1969년 7월 7일.
5. 「산업인물, 식품공업 유업업계, 『매일경제』 1975년 7월 7일.
6. 「우유싸움, 질대량 부족이 불씨, 『경향신문』 1969년 7월 7일.
7. 「대한식품, 우유처리기공공장,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8. 「분유회사 시설 확장, 『매일경제』 1971년 6월 10일.
9. 해태제과, 『해태 삼십년사』, 1976, 346쪽.
10. 해태제과, 『해태 삼십년사』, 1976, 347쪽.
11. 「유산균 발효유 판매전 치열할 듯, 『매일경제』 1977년 9월 29일.
12. 해태제과, 『해태 삼십년사』, 1976, 350-351쪽.
13. 「해태제과 옛 식구끼리 상표권 다툼 해태유업, 『경향신문』 1990년 12월 22일.
14. 「직매장서 해태유업 문전박대, 『매일경제』 1990년 5월 16일.
15. 「해태 상표싸움 타결 제과-유업 법정화해, 『매일경제』 1992년 6월 3일.
16. 해태제과, 『해태 삼십년사』, 1976, 348쪽.
17. 「스카이데일리, 2016년 12월 23일.
18. 「수원시, 40년 묵은 악취 민원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한국일보』 2023년 11월 1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하여”

: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解憂齋)

SRI

수원시장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배나무골이란 마을이 있다. 이목동은 말 그대로 배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이목동에는 배나무골 말고 쑥이 많이 자라는 마을인 쑥뎡이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그냥 이목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이목동의 마을 형태가 많이 변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옛 전통의 마을 형태는 남아 있다.

배나무골은 이목동의 근간이 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특별한 문화공간이 있다. 바로 해우재(解憂齋)이다. 해우재는 ‘근심을 푸는 집’이란 뜻이며,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회장(세계 화장실협회 초대 회장)이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WTA) 창립 즈음에 우리 삶에 화장실이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변기 모양으로 지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이다.

해우재를 건립한 사람은 수원문화원장을 역임하고, 민선 1~2기 수원시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역임한 고(故) 심재덕(1939~2009)이다. 심재덕 사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족은 이 집을 2009년 7월 수원시에 기증하였고, 수원시는 세계화장실문화운동의 열정을 이어 가고자 해우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2010년 10월 30일 화장실박물관으로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해우재는 특이한 외형뿐만 아니라 집안의 한 가운데 화장실을 두어 생활의 중심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해우재의 독특한 건축양식은 심재덕 회장의 철학과 신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공간이다. “화장실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을 정도로 생활공간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통념을 뒤집은 해우재의 중앙화장실은 평상시 전면 유리를 통하여 정원을 감상하거나 홀로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용변을 볼 때 스위치를 켜면 전면 유리가 불투명유리로 변하여 외부와 차단되게끔 장치한 흥미로운 화장실이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1
- 2
- 3

1 2015년 해우재 문화센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 2010년 해우재 전시공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3 2015년 해우재 화장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해우재는 수원 이목동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해우재는 단순한 화장실박물관이 아니라 국제적인 명소로 전 세계 화장실문화의 보급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곳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 화장실문화뿐만 아니라 미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의 교육공간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해우재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해우재의 건립과 공간 그리고 교육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심재덕, 깨끗한 화장실의 중요성을 알리다

"진정한 문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화장실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7년 3월, 심재덕은 수원시청에 화장실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름이 특이하였다. '화장실문화계'이다. 화장실 '관리계'가 아니라 '문화계'인 것이다. 화장실에 위생, 청결, 수리라는 단어는 잘 갖다 붙여도 문화라는 말을 붙인 사람은 아마 수원에서 심재덕이 처음일 것이다. 심재덕은 문화시민, 문화도시, 문화국가의 기본이 바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화장실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하였다. 예를 들어 "처가와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는 말 자체가 그런 단면을 잘 보여 준다. 더러운 화장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어야 좋은 것, 그것이 우리의 정서였다. 그런데 심재덕은 누군가 더럽게만 생각해서 피하려는 화장실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 꿈을 꾸었다.

심재덕이 본격적으로 화장실 정화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 때문이었다. 1996년 심재덕은 수원에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수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회의 도중 UN 기관에서 근무하던 한 외국인이 "당신네 나라의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원의 화장실을 꼭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그가 엄청난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화장실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세계적인 경기를 치르는데 화장실이 지지분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말이었다.

심재덕은 이 소리를 듣고는 창피하면서도 너무나 놀라 귀까지 빨개지는 것 같았다. 사실

이 회의를 하기 일주일 전 수원 시내에서 너무도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다. 그때 심재덕은 '시장인 자신도 이렇게 불결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수원에서 월드컵 경기를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원의 화장실은 더럽다."라고 평가한다면, 과연 월드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한·일 공동 개최인데 갈끔한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그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을 것만 같았다. 이날 이후 심재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순간의 깨달음이 전 세계 화장실문화를 바꿀 원동력이 된 것이다.

심재덕은 화장실 문제를 지적한 외국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회의 다음 날 심재덕은 수원시 전체 간부 회의를 열어 수원시의 모든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시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원시 공무원들은 심재덕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였다. "아니 무슨 화장실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거야?"라며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화장실이라면 그저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이고,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찔러도 그냥 좀 참으면 그만인 곳이었다.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수원시 내 공중화장실은 담배꽂초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군데군데 칩을 뺀어도, 화장지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공무원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던 심재덕은 우선 수원시 내에서 가장 지지분한 곳으로 지적받고 있던 공중화장실을 골라 우리나라에서 최상의 환경을 갖춘 유쾌한 곳으로 개조·관리하라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수원시청 직원들은 1996년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의 타워호텔, 보라매공원, 장충단공원, 남산공원 등의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의 내부 시설물과 위생용품, 관리실태 등을 비교·조사하였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또 화장실문화계 직원들은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였다. 휴지결이의 높이는 얼마나 하는 것으로 좋을지, 화장실에서 듣기 좋은 음악은 무엇인지 조사하러 다닌 것이다. 심지어 심재덕은 담당 직원들을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으로 파견해 공중화장실을 견학하게 했다. 그의 화장실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1999년

2월 19일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심포지엄



6월 29일



화장실문화협의회 활동



8월 27일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발족식



8월 27일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창립총회



11월 30일



전망 좋은 화장실 준공식



12월 20일



화장실 시티투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2000년

5월 9일



화장실용품전시회



9월 28일



제1회 한일화장실포럼 2000



12월 21일



제1회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한 표어공모전



11월 29일



제3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



2002년

2월 28일



전국화장실담당자교육



독일 2DF-TV 화장실 취재

5월 13일



화장실문화캠페인

5월 18일



영국 BBC에서 수원 화장실문화 취재

O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원

2. '화장실 전도사'가 만든 '유쾌하고 만족스런 화장실'

심재덕은 1997년 수원역,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공원, 전통시장, 주유소 등에 설치된 8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하기로 했다. 변기는 최대한 고급형으로 바꾸고 벽면과 바닥은 콘크리트 대신 타일 등으로 교체해 호화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갈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심재덕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냄새'였다. 화장실은 냄새나는 곳이라는 고정 관념을 완전히 바꿔 놓겠다는 계획이었다. 화장실 안에 방향제를 두거나 향수를 뿌려 악취를 억제하고, 소독을 수시로 했다. 또 조화(造花)를 배치하고 화장실에 잔잔한 음악도 흐르게 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놀라운 발상이었다. 심재덕이 강하게 추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심재덕은 1997년 4억 원을 들여 화서문 화장실 등 5개의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었고,



지지대 화장실(1999년)



팔달문 화장실(1999년)



장안공원 화장실(1999년)



연무대 화장실(2000년)



반딧불이 화장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998년에는 5억 9,000만 원을 들여 반딧불이화장실 등 5개, 1999년에는 5억 3,000만 원으로 5개의 공중화장실을 지었다. 1997년부터 3년간 모두 15개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총 15억 1,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1개 화장실에 평균 1억 원씩을 들인 셈이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이름난 수원의 화장실은 모두 이때 지은 것이다. 반딧불이화장실의 경우 43평 규모에 2억 1,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평당 500여 만 원에 이르는 건축비는 당시 분양되던 고급 아파트 단가보다 비싼 편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화장실을 건립하느냐고 아우성이었다. 언론에서도 “화장실 건립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한다.”고 공격하였다. 하지만 심재덕은 꼭 참고 이를 견뎌냈다. 지저분하기만 했던 배설의 장소를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해우(解憂)’의 공간으로 바꾸면 시민의식도 자연스레 성숙하리라 믿고 수많은 비난을 참았던 것이다.

광고산 진입로의 절개지를 이용해 만든 반딧불이화장실은 화장실 내부 어디서나 광고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화장실 안에 들어서면 새소리와 음악이 들리고, 공간마다 꽃이 놓여 있다.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들고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심재덕은 수원 시민들에게 세련된 화장실이란 대체 어떤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볼 때마다 시민들의 감동은 배가 되었다. 당시 신설된 화장실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예산은 이렇게 쓰는 거야.”

심재덕은 새로 짓는 화장실에는 반드시 여성 공간을 남성 공간보다 3배 늘리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읽은 글 때문이었다. 일본화장실협회 회장 니시오카 히데오(西岡秀雄)가 쓴 기고문을 읽게 됐는데, 그는 남녀의 화장실 점유시간은 3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남자는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31.7초, 여자는 1분 32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도로공단은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보다 3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재덕은 이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아날 이후 신설 화장실에는 여성의 변기를 남성의 것보다 3배 이상 만들게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수원의 공중화장실에서는 길게 늘어선서 기다리는 여성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심재덕은 1999년 2월 1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때 그는 화장실문화 만들기의 동반자를 만났는데, 바로 전영상 세계화장실연구소장이었다. 전 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연 친화적 환경설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심재덕은 전 소장의 발표를 듣고, 만찬 자리에서 ‘한국화장실협회(Korea Toilet Association)’를 설립해 화장실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만들고 국제화장실 세



1999년 2월 19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9년 8월 27일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창립총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미나 및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화장실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전 소장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실제로 심재덕은 전영상과 함께 1999년 8월 27일 '한국 화장실문화협의회'를 수원에서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심재덕은 초대 한국화장실협회 회장이 됐고, 정부기관으로 발송하는 월간지를 통해 수원 화장실의 깨끗함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였다.

1999년 11월 29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유쾌하고 만족스런 수원 화장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한 외국인의 부끄러운 지적에 화장실문화 개선을 시도했던 심재덕이 이제는 외국 신문에까지 '깨끗한 화장실 전도사'로 소개된 것이다. 그 후로 수원은 '화장실 관광'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관광문화를 전개하였다.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화장실문화를 배우기 위해 수원을 방문한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안내하는 관광가이드는 관광객들을 화성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하며 "오늘 우리는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잘 디자인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화장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며 화장실을 안내한다.

이에 관광객들은 한옥 양식의 화장실로 들어가 따뜻하게 데워진 좌변기에 앉아보고, 세면대를 살펴보며 사진을 촬영한다. 비발디의 '사계', 한국 궁중음악, 자연의 새소리 등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며 최첨단 자동 수도꼭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태양열 난방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저마다 감탄하곤 한다. 수원의 각 공중화장실 문에는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엘리트 시민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심재덕은 화장실문화 개선 하나만으로 수원 시민을 엘리트 시민으로 만든 것이다.

3.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는 본래 민선 1·2기 수원시장이었던 심재덕의 자택이었다. 2007년 3월 심재덕이 '세계화장실협회(World Toilet Association, 약칭 WTA)'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그전에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변기 모양의 집을 지었으며, 이 집의 설계는 건축가 고기웅이 맡았다.

2009년 1월 심재덕 시장이 죽고 난 후 그의 유지에 따라 해우재는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이란 "국가가 아닌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세계 유일의 변기 모양 건축물을 심재덕 시장이 전개했던 '화장실문화운동'을 알리기 위한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9년 해우재 기부채납 협약 체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지렛대로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년여의 리모델링을 거쳐 2010년 10월 30일 정식 명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로 개관하게 되었다.

수원시에 있는 박물관들이 수원시청 산하 박물관사업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 반해, 해우재의 경우 수원시청 내의 환경국 산하 화장실문화팀의 관리 책임하에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초로 운영 및 관리된다. 이 조례는 2010년 11월 17일 제 2947호로 제정되었으며, 2차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2021.5.12. 조례 제4165호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이르게 되었다. 이 조례에는 수원시 화장실 문화전시관이 "지역 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문화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례 제17조와 제18조는 해우재가 고(故) 심재덕의 집으로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다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우재 운영은 심재덕의 유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관련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제 17조를 보면 수원시장이 해우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원시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 수탁자의 자격에서 해우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



2015년 제1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원시 대통령상 표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하였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심재덕 전 수원시장 사후 설립된 사단법인 미스터토일렛 심재덕기념사업회가 2010년 해우재 개관 직후부터 지금까지 관리 및 운영을 맡아 오고 있다.

해우재는 크게 해우재전시관, 해우재문화센터, 화장실문화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우재전시관은 2010년 심재덕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오픈하였고, 2012년에는 전시관 뒤편으로 화장실문화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2015년 해우재문화센터가 개관함으로써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먼저 해우재전시관은 대지면적 5,190㎡(1,569.9평)에 연면적 480.27㎡(지상 2층, 지하 1층)로 건설되었으며, 한국기록인증서에 '가장 큰 화장실 조형물'로 기록되어 있다. 해우재는 본래 일반 가정집으로 건축된 건물이 박물관으로 리모델링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립박물관과 비교해 본다면 규모가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실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공간임을 알리고자 했던 심재덕의 철학과 신념이 녹아, 변기 모양으로 설계되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화장실문화 전시관으로서의 개성은 건물 외관에서부터 확실하게 드러난다. 즉,



2010년 10월 30일 해우재 개관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1년 10월 30일 개관 1주년 해우재음악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변기 모양 건물 그 자체를 통해 화장실문화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우재전시관은 220.47m² 규모의 1층 상설전시실과 138.73m² 규모의 2층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상설전시실 외에도 안내데스크 겸 기프트숍, 수유실이 자리 잡고 있다.

상설전시실 내부에서는 해우재 안의 화장실 '중앙화장실'이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 중앙화장실의 경우 변기 모양 해우재 건물의 가운데 움푹 들어간 위치 바로 아래쪽, 해우재 건물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심재덕이 해우재에서 거주했을 당시엔 실제로 사용되었던 화장실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현재 전시공간으로 용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중앙화장실의 형태만큼은 심재덕이 사용했던 그대로 두어, 화장실을 단순히 배설의 장소가 아닌 음악과 향기, 예술이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집안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심재덕의 철학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였다.

해우재전시관 뒤편에 위치한 화장실문화공원은 2012년 5,190m²의 면적에 조성된 야외



2012년 7월 4일 화장실문화공원 개장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2년 7월 4일 화장실문화공원 개장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전시장이자 공원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한민국의 화장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조형물은 물론, 서양 고대 로마의 수세식 변기부터 현대미술 영역의 프랑스 예술가 '마르셀 뒤샹'의 1917년 작 '샘'이라는 작품까지 동·서양 화장실과 관련된 다양한 모형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화장실 변기 변천사에 대한 전시가 두드러지는데, 신라시대 귀족 여성이 사용했던 노뚝돌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을 통해 뒤처리해 왔음을 보여 준다.

또 공원 한쪽에는 왕궁리 대형 뒷간 터가 재현되어 있다. 2004년 백제의 궁궐터로 유명한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대형 뒷간 터가 발굴되었는데 7세기(백제 무왕 600~641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화장실로 알려졌다. 이 왕궁리 유적 변소 유구를 재현하여 고대의 공중 화장실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왕궁리 유적에서 발굴된 대형 화장실 유적 연구를 통해 각종 기생충과 기생충 알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분석 결과 고대의 사람들이 채식 위주의 민물고기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식사했음을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화장실 유구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식문화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는 제주도의 통시변소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현 무암으로 변소가 꾸며져 있으며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면 돼지 우는 소리가 나는 음향장비를 설치해 놓았다. 비록 모형이지만 통시변소를 체험하는 관람객들이 실제 통시변소를 이용해 보는 듯 실감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분노의 자원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해 두고 있다.

세미나실(139.21m²)은 해우재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해우재 교육 프로그램 톱놀이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화장실 관련 교육이나 화장실과 관련된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대관이 가능하다. 문화센터 옥상에 위치한 전망대는 건너편 해우재전시관이 변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우재전시관 뒤쪽 화장실문화공원까지 시설 전반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한편 해우재는 해마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해우재를 알게 된 경로를 분석해 보면 언론 보도나 TV와 같은 전통적인 일방향성 매체보다 SNS(Instagram, 블로그)와 같은 소통형 창구를 통해 해우재를 접하고 방문하는 경우 응답자 61명(43.3%)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혹은 지인들의 추천, 즉 '입소문'을 통해 듣고 오는 경우도 39명(27.7%)이 있었는데, 이 두 경로가 모두 소통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묶어 본다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화장실문화공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8년 9월 4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장 일행 방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해우재를 방문하는 횟수는 109명(77.3%)이 첫 방문이라 응답하였으며, 2회 이상 재방문하는 경우 또한 전체의 23.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첫 방문이라 응답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수치로 첫 방문 이후 재방문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우재가 화장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특수박물관이기 때문에 해우재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확실한 목적을 갖고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수원의 유명한 관광지라서 10명(7.1%),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73명(51.8%), 동반인의 추천 7명(5%),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48명(34%),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명(1.4%), 기타 1명(0.7%)로 집계되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로 해우재를 선택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해우재를 방문하는 목적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한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우재 상설전시실은 2017년 전시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약간의 개·보수를 거쳐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설전시실의 전시 구성은 크게 화장실의 역사, 수원시



2019년 해우재 관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청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화장실문화운동의 연혁, 중앙화장실, 화장실 과학까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설전시실의 관람 방향은 입구에서 좌측으로 간단한 해우재 소개와 함께 정하고 있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시간에 따라 매주 토요일 일회성 단기로 진행되는 똥놀이터가 있으며, 장기간 꾸준히 진행되는 어린이 토리기자단이 운영 중에 있다. 똥놀이터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해우재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크게 똥과 화장실, 해우재와 수원의 화장실문화운동, 식습관과 배변 훈련, 환경과 생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공예, 미술, 원예 등의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매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체험관은 신비로운 몸속 여행으로 시작된다. 여행을 통하여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몸속에서 소화되어 어떻게 똥이나 오줌으로 나오는지 보여 주고 똥똥 방귀의자, 부글부글 똥 제조기, 똥뿌리자 똥똥 등의 재미있는 게임 콘텐츠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익한 똥 이야기로 만들어진 재미있는 영상을 통하여 똥이 거름이 되어 귀한 자원이 된다는 똥의 순환 이야기와 옛날에 똥을 나르던 도구들을 살펴보는 등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화장실 이야기와 화장실 예절을 체험하도록 하여 똥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 아름답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퐁글퐁글 어린이 세상(해우재 홈페이지 제공)



수원시정 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센터

2018년 9월 4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장 일행에게 해우재 해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답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

본래 해우재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단기로 진행되었던 상반기·하반기 세미나와 장기 SNS서포터즈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삭감으로 현재 상·하반기 세미나는 폐지되었고 SNS서포터즈만이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SNS서포터즈는 앞서 어린이 토리기자단과 비교하여 연령과 기사작성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우재와 함께 수원시 화장실문화운동에 대해 홍보를 한다는 점에서 활동 목적이 유사하다.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타 박물관의 성인 교육을 보면 '박물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가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 등 성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